

전략연구 2022-25

국방부 충남이전 당위성 및 유치전략 검토

- 국방부 왜 이전해야 하는가? -

이세영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39대 충남도지사로 당선된 김태흠 도지사는 ‘힘쎈 충남’을 내세우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음.
- 2) 이중 3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육군부사관학교 등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특성화 시인 계룡과 논산시 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국방부,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국방관련 기관을 유치하여 국방 클러스터 조성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 3)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방부를 유치하기 위해 계룡과 논산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치 당위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임.

2. 연구내용

- 1) 계룡시 및 논산시 현황
- 2) 국방부 이전의 필요성
- 3) 국방부 유치관련 동향분석
- 4) 타 지역(강원도) 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5) 국방부 이전관련 인식조사 분석/평가
- 6) 계룡시·논산시 유치 당위성
- 7) 유치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3. 정책제언

- 1) 본 연구자료를 국방부 이전과 관련된 기관대상 자료제공 및 설명 시 활용
- 2) 유치 당위성 홍보를 위한 각종 언론 자료로 활용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내용 및 연구절차 3

제2장 국방부 이전의 필요성

1. 전·평시 국방부의 안전성 유지(안보환경 변화에 대처) 5

제3장 국방부 유치관련 동향분석

1. 강원도 9
2. 충청남도 10
3. 분석 및 평가 10

제4장 강원도 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

제5장 국방부 이전 관련 인식조사

1. 개요 13
2. 설문결과 분석 및 평가 13

제6장 계룡시 유치 당위성

1. 개요 18
2. 지역유래 18
3. 계룡시 연혁 19
4. 고려요소 21

제7장 논산시 유치 당위성

1. 개요 62
2. 지역유래 62

3. 논산시 연혁	63
4. 논산시 분야별 특성	65
5. 고려요소	68

제8장 국방관련 기관 유치 성공사례

1. 국방대학교(논산시)	94
2. 학생중앙군사학교(괴산군)	99

제9장 이전지역 판단(안)

1. 계룡시	108
2. 논산시	110

제10장 유치전략

제11장 관심유도를 위한 기획행사

제12장 유치 시 기대효과

제13장 결론

참 고 문 헌	133
---------------	-----

표 목 차

〈표-1〉국방부 이전 필요	13
〈표-2〉이전 이유	13
〈표-3〉이전 지역	14
〈표-4〉계룡·논산지역 이전 이유	14
〈표-5〉계룡·논산지역 유치 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	14
〈표-6〉계룡·논산 유치 성공전략	15

그림 목 차

〈그림-1〉연구절차	4
〈그림-2〉국방교육·훈련여건	39
〈그림-3〉각종 훈련여건	41
〈그림-4〉리더십, 인성관련 교육장소	44
〈그림-5〉지역 내 공동사용 가능시설	53
〈그림-6〉리더십, 인성관련 교육장소	86
〈그림-7〉국방부 이전 예정지(제1 이전 예정지)	108
〈그림-8〉국방부 이전 예정지(제2 이전 예정지)	109
〈그림-9〉논산 국방부 이전지역	110
〈그림-10〉유치 추진 흐름도	125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2) 이 법에 따라 2005년 6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이전을 시행해 왔음.

3)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2018년 말 기준) 150개 기관을 이전하였음. 따라서 정부는 추가적으로 122개 기관에 대한 이전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4) 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러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

5) 충남도도 제39대 충남도지사로 당선된 김태흠 도지사는 ‘힘센 충남’을 내세우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음.

6) 권역별 실천 방안은

- ▶ 천안·아산 :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 ▶ 서산·태안·서천·보령 : 서해안 지역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 ▶ 홍성·예산 : 내포 혁신도시 완성
- ▶ 계룡·논산·금산 : 국방특화 클러스터 발전
- ▶ 공주·청양·서천 : 문화 명품 관광도시 육성

7) 계룡·부여·금산지역은 육·해·공군본부,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와 인접지역에 육군부사관학교(익산)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특성화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향후 국방관련 기관 중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국방 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8) 특히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 국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논산시와 계룡시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만남의 행사를 가질 때도 강한 유치 의지를 표명한바 있음.

9) 이러한 의지에 따라 계룡시와 논산시는 이미 국방관련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치 노력을 펼치고 있음.

10)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부 충남이전 당위성 및 유치성공 전략을 검토하여 제공하는데 있음.

2. 연구범위와 내용 및 연구절차

1) 연구범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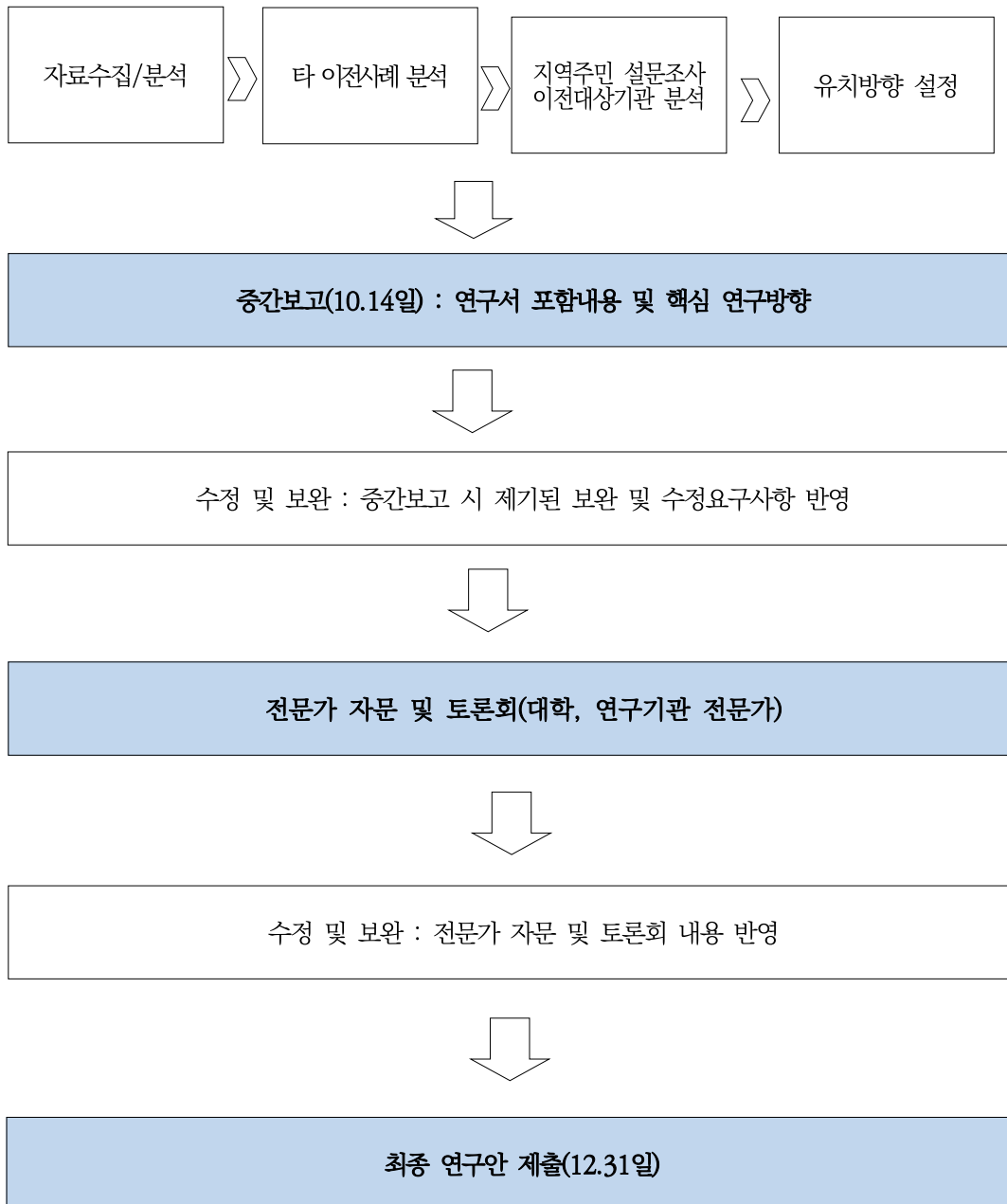
(1) 시간적 범위 : 4개월(2022. 8. 22 ~ 2022. 12. 31)

(2) 공간적 범위 : 계룡·논산시 일원

(3) 내용적 범위

- 계룡시 및 논산시 현황
- 국방부 이전의 필요성
- 국방부 유치관련 동향분석
- 타 지역(강원도) 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국방부 이전관련 인식조사 분석/평가
- 계룡시·논산시 유치 당위성
- 유치 추진전략
- 유치 기대효과

2) 연구절차



〈그림-1〉연구절차

제2장 국방부 이전 필요성

- ▶ 전·평시 국방부의 안전성 유지(안보환경 변화에 대처)
- ▶ 전시 국방부 후방지역 이동 용이성
- ▶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기능 분산
- ▶ 서울 집중현상 해소
- ▶ 지역균형발전 도모
- ▶ 한미동맹 강화 및 연합작전 수행용이
- ▶ 국방부 운영 효율성 증대
- ▶ 방위사업청 대전이전과 연계 국방클러스터 형성

1. 전·평시 국방부의 안전성 유지(안보환경 변화에 대처)

1) 6.25전쟁 당시 북한군은 소련제 전차 등 전반적인 무기와 장비 면에서 우세하였으며, 병력도 남한의 2배 수준인 20만명이 기습남침에 동원되었으며 사단급 훈련까지 철저히 훈련을 마친 상태였음. 따라서 한국군은 최선을 다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행하게도 3일만에 서울이 함락 되었음. 이로 인해 정부기능은 물론 당시 서울에 위치하고 있던 국방부도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제한되었음. 만약 북한이 또다시 남침을 기도할 경우 작전상 데프콘 격상 상황이 발생 시 작전상 불가피하게 계룡 또는 논산지역으로 사전 이전하여 안정적인 기능 유지하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상황 대처가 가능할 것임.

2)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휴전이후로 대한민국 국군은 짧은 기간에 세계 6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재래식 무기면에서는 북한을 초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 5위 수준의 방산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따라서 만약 북한이 재침을 한다 해도 6.25전쟁 당시와 같이 일방적으로 후퇴하는 경우는 없을 것임.

3) 북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방사포를 군사분계선 일대에 집중 배치(10,000여문)하고 남한지역 어느 지역이든 표적으로 하여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4) 북한의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만약 재침을 시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지역에 위치해 있는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정부 및 군 기관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정상적인 정부 및 국방기능이 수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전면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

5) 따라서, 전·평시 정부 및 국방기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경우 접적지역으로 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위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6) 즉, 지휘수단, 교통의 발달 등 사회적 변화, 북한의 의도, 3군 본부와의 업무수행 효율성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충남지역의 계룡이나 논산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함.

7) 그리고 북한이 남침을 시도할 경우 현재 서울의 밀집도, 전시 대량 피난민 발생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방부가 서울에서 원활한 지휘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북한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포함하여 31명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한 사례를 비춰볼 때 재침을 시도할 경우에는 북한이 보유한 20만 명에 이르는 특수전부대 일부를 사전에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 모본부 등을 침투하여 정상적인 지휘기능수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 최근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공간부족으로 국방부 기능이 분산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음.

8) 또한, 국방부가 이전 시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평택지역으로 이전 완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협조가 용이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9) 또한 북한이 노리는 전략 중 하나가 속전속결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및 국방부등이 작전상 이동하려 할 경우 예도 과거처럼 충분한 시간과 안전이 보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 될 것임.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방부 이전이 필요함.

10) 여기에 급속한 인구소멸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소멸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충남도 남부권(논산, 금산, 부여, 청양등)은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충남도 9개 소멸지역 중 6개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방부의 이전은 단순히 계룡과 논산지역 소멸지역 극복뿐만 아니라 충남도 남부권 쏠 지역의 동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국방부를 포함하여 이점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특성을 살려 모든 지역이 잘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국방 분야 최적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계룡 또는 논산지역으로 이전 시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위사업청과 각종 국방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방클러스터 조성에도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11) 국방부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특히 청와대가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의 지방이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 것도 사실임. 하지만 현재는 국방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나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려움.

12) 그러나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 근무환경이 여러모로 발생 하고 소속 부대나 기관들이 통합되지 않고 분산된 상태로 근무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언젠가는 또 다시 국방부 이전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강원도, 충남도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물밑에서 나름대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13) 사실 국방부에는 6,500여명의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규모상 대규모는 아니지만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내외 관련활동을 고려해 볼 때 국방부 이전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서울 집중현상을 해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14) 무엇보다도 충남도의 계룡이나 논산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3군본부와 유기적인 업무 수행에 따라 국방정책 개발과 운영등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속히 국방부 이전이 이루어져할 것임.



(북한위협)



(국방부)



(평택미군기지)



(방위사업청 대전이전)

제3장 국방부 유치관련 동향분석

1. 강원도

- ▶ 강원도 : 국방부 유치 통하여 경제자치도 연계 발전 모색
 - ※ 국방부, 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유치 목표
- ▶ 충남도 : 국방 모범도시 완성. 지역균형발전 차원 총역량 집중 유치의지 표명 및 다각적인 유치 활동
 - ※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유치 목표

1)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인 양철박사는 국방부 강원도 이전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인수위위원회부터 지역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차기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강조 하면서

2) 강원도 접경지역의 미 활용터를 활용하면 국방부 이전비용과 국방부 이전에 다른 규제를 걱정하는 인근주민 반발 등도 최소화 가능하다고 전망하면서 국방과 연계하여 정부가 강원도에 약속한 경제특별자치도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다 주장하고 나섬.

3) 2022년 4월 5일 강원연구원은“대통령은 용산으로 국방부는 강원도로”라는 제목 하에 분산된 국방부의 통합에 대비하여 강원도가 국방부를 유치하고 국방과 경제자치도를 연계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적지는 강원도라 강조함.

4) 강원도가 수도권, 충청권, 대구 및 경북권 등 3대 광역권과 연계하고 수도권 인근에 강소도시의 잠재력을 갖춘 중소도시가 있다는 점에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해 5대 광역 메가시티에 연계한다는 지역균형발전 구상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5) 국방부 이전에 필요한 부지와 미래형 훈련체계 구축을 위한테스트베드부지는 기존의 미활용 군 부지를 활용해 이전에 다른 비용과 인프라 조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장함.

2. 충청남도

1) 김태흠 도지사는 8월 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 힘 예산정책협의회시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건의하고

2) 이어 8월 7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방 인프라 스트럭처를 갖춘 충남으로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를 이전하는 것이 국방전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 이라며 10월 5일 도청에서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범도민유치 위원회를 출범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함.

3) 이에 발맞춰 계룡시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위치한‘국방모범도시’완성을 목표로 다양한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음.

4)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 12월에 전역 군인들이중심이 되어 ‘국방부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2022년1월부터 서명운동을 펼쳐 2,00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음.

3. 분석 및 평가

- ▶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대통령실 용산이전, 연합사령부 평택이전, 북한의 위협 가중, 전·평시 작전 용이성 등 고려 시
- ▶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강원도, 충남도 (계룡·논산)에서 강력한 유치 의지를 가지고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제4장 강원도 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 접경지역 근거리 위치로 북한의 위협에 취약
- ▶ 육·해·공군본부와 원거리 이격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 ▶ 위기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 제한
- ▶ 한미 연합작전 수행여건 제한
- ▶ 전국지역에서의 접근 제한
- ▶ 군인들 대부분 강원도를 전방으로 인식하는 정서 여전

1. 강원도는 군사분계선을 연한 248km 중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이 접경되어 있어 북한지역과 마주한 상태에서 다수의 군부대와 관련시설들이 소재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역적 특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접경지역주민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찾는 등 안보문제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지역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강원도 입장에 서 국방분야 최고 기관인 국방부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2. 그러나 국방부는 여러 공공기관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국가안보를책임져야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전·평시 안정적으로 국 방정책과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함.

3.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보다 오히려 북한 지역에서 더 가까운 것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3군 본부와 더욱 거리가 이격되게 되어 3군 본부 관계관들이 국방부 업무를 보기 위해 현재보다도 훨씬 원거리 출장을 가야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현재도 3군 본부에서는 매일같이많은 인원들이 국방부 업무 차 연락버스와 열차를 이용하여 서울을 오가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방 효율화 차원에서도 역행하게 되는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됨.

4.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보환경변화와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시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재보다도 더욱 원거리로 이격되는 상황은 매우 위험함.

5. 여기에 계룡과 논산 지역에는 야전부대를 포함하여 3군본부, 국방대학교, 육군 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관련 다양한 기관과 부대가 인근지역에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등이 위치해 있어 국방정책뿐만 아니라 국방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과 의견 수렴 등이 가능한데 비해 강원도 도청일대에는야전부대 성격의 일부 부대 외에 국방관련 기관들이 부재하여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6. 이러한 여건은 위기상황 발생 시 적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처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7. 그리고 그동안 국방부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던 한미연합사를비롯한 모든 부대가 10월 말에 평택기지로 이전 완료한 상태로 국방부가 강원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한미 연합업무 수행이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는 갈수록한미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시 가벼운 문제가 아님.

8. 그리고 국방부는 전국지역에서 어느 한 곳만을 대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곳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업무의 경중은 있을 수있으나 전국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함. 강원도도 나름대로 교통망이 발달하였지만 계룡과 논산의 경우는 현재 남한지역에서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전국어디서나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을 고려할 때 강원도 보다는 이전 시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된 국방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9. 여기에 강원도 하면 군 생활하는 대부분 군인들은 전방지역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깊게 깔려 있음. 이러한 정서는 군 생활을하는 가족들에게는 심리적 안정, 교육 및 문화혜택 등 정주여건 측면에서 오랫동안 강원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어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임. 계룡과 논산지역은 인근지역에 대전, 세종 등 대도시가 위치해 있고 교육, 문화, 교통 등 전반적인 정주여건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음.

제5장 국방부 이전 관련 인식조사

1. 개 요

- 1) 조사방법 : 설문조사
- 2) 조사대상 : 325명(충남도 직원 207명, 시·군 118명)
- 3) 설문방법 : 충남도청 포털 설문 및 인터넷 네이버 폼(시군)
- 4) 조사기간 : 2022.8.1.~9.2

2. 설문결과 분석 및 평가

- 1) 귀하는 국방부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설문내용	인원(명)	비율(%)
꼭 필요하다	206	63
필요하다	76	23
불필요하다	20	6
관심없다	23	7

〈표-1〉 국방부 이전 필요

- 2)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내용	인원(명)	비율(%)
전평시 국방조직 안정성 유지	147	24
서울 집중현상 해소 차원	126	21
지역균형발전 차원	186	31
국방부 운용의 효율성 증대 차원	146	24

〈표-2〉 이전 이유

3)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적합한 이전지역은?

설문내용	인원(명)	비율(%)
계룡/논산지역	305	95
강원도	1	0
세종지역	9	3
과천시	6	2

〈표-3〉이전 지역

4) ①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

설문내용	인원(명)	비율(%)
3군본부 등 다수의 군 관련 기관 및 부대 위치	272	49
남한의 중시지역 위치	89	16
지역균형발전 차원	118	21
북한위협으로부터 안전지역	79	14

〈표-4〉계룡·논산지역 이전 이유

5) 귀하는 국방부를 계룡·논산지역 유치에 성공한다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설문내용	인원(명)	비율(%)
국방특례도시 완성	129	40
지역경제 활성화	89	16
인구 증가 효과	23	7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연계 방위산업 활성화	124	39

〈표-5〉계룡·논산지역 유치 성공 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

6) 귀하는 국방부 계룡·논산지역 유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내용	인원(명)	비율(%)
충남도지사와 각 지역 시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	99	31
충남도민 유치 성공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	10	3
타 유치 경제도시와의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립	99	31
계룡·논산지역 미래지향적인 국방 분야 발전 비전제시	114	35

〈표-6〉계룡·논산지역 유치 성공전략

7) 분석/평가

- ▲ 충남도민과 계룡·논산시민들은 국방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282명(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국방부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 ▲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냐는 질문에는 1,476명(24%)가 전·평시 국방조직의 안정성, 126명(21%)가 서울 집중현상 해소차원, 186명(31%)가 지역균형발전 차원, 146명(24%)가 국방부 운영의 효율성증대 차원에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8) 기타의견

▲ 가장 적합한 이전장소에 대한 질문에 계룡·논산지역 305명(95%), 강원도지역 1명(0%), 세종지역 9명(3%), 과천시 6명(2%)으로 계룡·논산지역이 이전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함.

▲ 계룡·논산지역에 이전하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국방특례도시 완성 129명(40%), 지역경제 활성화 44명(14%), 인구 증가효과 23명(7%),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연계 방위산업 활성화 도움 124명(39%)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 증가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국방특례도시 완성과 논산지역에 조성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방위산업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계룡·논산지역에 국방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충남도지사과 두 지역 시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 99명(31%), 충청남도 도민의 100만인 서명운동 10명(3%), 타 유치 경쟁도시와의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립 99명(31%), 계룡·논산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국방 분야 발전 비전제시 114명(35%)로 나타나 두 지역의 국방 분야 발전 비전제시와 지자체장들의 유치 의지, 차별화된 유치 전략 수립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9) 기타 의견으로

- 정치적 접근 필요 · 적극적인 유치 노력 중요
- 지자체 장들의 강력한 유치 의지
- 계룡·논산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강조
- 금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국방도시로써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
- 국방부 이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유치 타당성에 대한 차별화 논리
- 계룡대를 적극적으로 활용
- 유치 의지보다는 국방부 이전 시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하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 지역 균형발전, 국방안보특례시 조성 도움
-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단순한 지역균형발전 보다는 북한과의 전쟁 시 국방 분야 위협을 최소화하는데
 계룡·논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 발굴 제시 중요
- 진정한 국방을 위한 국방도시 완성을 위해 유치한다는 것이 중요
- 계룡·논산지역을 군 중심지역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

10) 결론적으로 설문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국방부의 계룡·논산지역으로 이전 성공을 위해서는

- ▲ 충남도지사와 계룡·논산시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이전기관의 임무와 기능 등 특수성을 고려한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유치 전략 수립과 다각적인 유치활동 노력이 요하다는 의견임
- ▲ 유치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도 의미가 있지만 전·평시 안전 확보와 공백 없는 국방부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지역 특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제6장 계룡시 유치 당위성

1. 개요

- 시 승격 : 2003. 9. 19
- 행정구역 : 3면 1동
- 세대 및 인구수 : 17,718세대/448,400명



(계룡시청 전경)

2. 지역유래

1) 계룡시(鷄龍市)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동남부에 있는 시임. 3군 각 본부가 계룡대에 자리잡음에 따라 2003년 9월 19일에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도시임. 동쪽에는 대전광역시, 남서쪽으로는 논산시, 북쪽에는 공주시가 있음.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가운데 강원도 태백시 다음으로 인구가 적음.

2) 대전광역시와 대표적인 위성 도시로서 대전광역시와 동 일한 생활권임. 호남고속도로 지선 계룡 나들목이 연결되고, 호남선 계룡역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함. 시청 소재지는 금암동이고, 행정구역은 두마면, 엄사면, 신도안면을 포함하여 3면 1동임.

3)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 육군·해군·공군 3군 본부가 이곳의 계룡대로 이전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음. 충청남도는 전원·문화·국방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1990년 2월 계룡출장소를 설치하였고, 2003년 9월에 논산시에서 분리되어 계룡시로 승격하였음. 펜타곤이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이나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가 있는 뉴욕주 하이랜은 국방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도시가 조성되었으며, 충청남도는 인구 15만명 수용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시기반시설 구축, 생활편익시설 확대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음.

3. 계룡시 연혁

1) 계룡시는 1895년 당시엔 연산현으로 있다가 1914년에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으로 변경되었다가 1989년에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가 두마면에 편입되었음. 1989년부터 시작된 3군 본부의 이전은 1993년 해군본부가 이전함으로써 3군이 모두 계룡대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990년에는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음.

2) 1991년에는 대통령 "계룡신도시 특정지역 지정" 지시에 1998년에 계룡·증평시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이를 계기로 하여 2003년 6월 30일에 계룡시 설치법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03년 7월 18일에 계룡시 설치법이공포(법률 제6929호)되어 이를 근거로하여 2003년 9월 19일에 2면 1동의 계룡시가 출범함.

3) 2006년 3월 2일 두마면의 북부를 분리해 엄사면을 신설(3면 1동)하고 2009년 5월, 21일에는 남선면을 신도안면으로 개칭함.

- ▷ 1895 : 충청도 연산현
- ▷ 1914 :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 ▷ 1989 :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가 두마면에 편입
- ▷ 1989 : 육군·공군본부 계룡대 이전
- ▷ 1990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두마·남선지소 설치)
- ▷ 1991 : 대통령 "계룡신도시 특정지역 지정" 지시
- ▷ 1993 : 해군본부 계룡대 이전
- ▷ 1996 :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 ▷ 1998 : 계룡·증평시 설치를 위한 법률(안) 국회상정
- ▷ 2001. 9. 20 : 대통령, 충남도 방문시 특례시 설치 약속
- ▷ 2003. 6. 30 : 계룡시 설치법 국회 본회의 의결
- ▷ 2003. 7. 18 : 계룡시 설치법 공포(법률 제6929호)
- ▷ 2003. 9. 19 : 계룡시 출범(2면 1동)
- ▷ 2006. 3. 2 : 두마면의 북부를 분리해 엄사면 신설(3면 1동)
- ▷ 2009. 5. 21 : 남선면을 신도안면으로 개칭

4. 고려요소

- ▶ 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 이행목적 구현
- ▶ 이전부지의 확장성, 경제성, 적정성
- ▶ 이전 시 국방관련 융합적 시너지 효과 달성면
- ▶ 호국·국방 역사성
- ▶ 교육 및 정주여건
- ▶ 자연 환경면
- ▶ 역사·문화관광 여건
- ▶ 접근성(교통 편리성)
- ▶ 국방교육·훈련여건
- ▶ 국방 분야 연구협력 여건
- ▶ 생활 편의성
- ▶ 군부대 협력여건
- ▶ 정부부처와의 협력 여건
- ▶ 육·해·공군부대와의 협력 여건
- ▶ 위기대응 용이성
- ▶ 외국군과의 교류 용이성
- ▶ 계룡시 미래 발전 Vislon

1) 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 이행목적 구현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시행 목적 부합여부 판단
- 이전지역 미래 발전 여건 판단
-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동반 성장 가능 여부 판단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참여정부의 마중물 정책 중 하나임.

(2) 따라서, 국방부 이전 시에는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3)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강원도지역은 現 정부에서 경제특별자치도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통일준비를 목표로 내걸고 교통망 확충,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약속한 상태로 향후 많은 발전이 예상됨.

(4) 그러나 계룡시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도시로3군본부 외에 특별히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로 국방부가 계룡시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모범 도시 완 성을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또한 과천시와 서울과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도시로 수도권발전과 연계하여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임.

(5) 따라서 국방부를 계룡시로 이전하는 것이 계룡시 발전은 물론 인근지역인 논산, 금산, 부여, 청양, 공주 등 소멸 예상지역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강원도청 및 과천 정부청사)

2) 이전부지의 확장성, 경제성, 적정성

- (접근성) 계룡 IC에서 약 4km이내 위치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1~2시간 이내 전국지역 군부대 접근 가능
- (확장성) 3군 본부가 위치하여 국방부 이전 시 가장 효율적으로 국방정책 수행 가능
- (경제성) 해당 부지는 국방부 소유 부지로 이전비용 최소화 가능
- (적정성) 이전부지 면적이 3만평 이상으로 국방부시설 수용 가능

(1) 계룡 IC에서 약 4km 이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및 전국에서 1~2시간 이내, 전국 지역 군부대 접근이 가능하며

(2) 3군 본부가 위치하여 국방부 이전 시 3군 관련 국방정책발전과 시행에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3) 해당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3만평 이상으로 국방부 시설 수용이 가능하며 이전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3) 이전 시 국방관련 융합적 시너지 효과 달성면

- 국방부 이전 시 국방역사, 교육, 연구, 국민 안보 공감대 형성, 체험 및 견학장소 활용으로 융합적인 효과 달성 가능
-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국방관련 기관 추가 이전 비전 등 고려

(1) 국방부 이전 시에는 단순히 국방정책 발전 시너지 효과 달성뿐만 아니라 국방역사, 교육, 연구, 국민 안보 공감대 형성, 체험 및 견학장 활용, 국방산업 등 융합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전지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강원도, 과천시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방관련 역사, 정책, 교육, 연구, 체험 및 견학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평가해야함.

(3) 이런 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 3군 본부와 인근지역에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인접 도시인 대전시에 다양한 군부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위치해 있어 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인 계룡시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4) 호국·국방 역사성

- 600여년 전 이태조가 새로운 도읍지로 정하고 1년간 천도를 위해 궁궐터 작업을 한 신도안 지역
- 1993년 3군 본부 이전 완료 : 3군 본부 계룡시대 시작
- 인근지역인 논산지역에 계백장군 5천 결사대, 신라 김유신 5만군대 결전지인 황산벌 소재
- 1951년 11월 1일 육군훈련소 창설이후 900여만 명 신병 배출
 - ※ 현재 매년 12만 명 신병 배출, 면회객 년 130여만 명이 방문함
 - ※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 상암월드컵 경기장 67개 규모
- 2017년 국방 분야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 이전
- 1957년 창설한 육군항공 교육의 산실인 육군항공학교 위치

(1) 계룡시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前 이태조가 새로운 도읍지로 정하고 1년간에 걸쳐 왕궁터 작업을 진행했던 역사적인 장소임. 또한 서울지역에 있던 3군본부가 1987년부터 1993년 까지 이전 완료하여 국방역사를 새롭게 열어가는 역사적인 지역임.

(2) 또한 인근지역인 논산시에는 지금으로부터 660년 前 현재의 연산지역 황산벌 일대에서 백제 계백장군의 결사대 5,000명과 신라 50,000명의 군사가 대치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음. 계백장군은 전장터로 출전하기 前 자신의 처와 자식까지 죽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출전하여 신라군에 비해 10분의 1정도의 병력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으나 결국 패하고 말았음.

(3) 역사가들은 비록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황산벌은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호국 정신과 충절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장소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평가로 인해 계백장군의 호국정신과 충절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된바 있으며 논산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장소부근에 군사박물관을 설립하고 계백장군 가묘를 조성하여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호국의 명소임.

(4) 또한 이곳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군은 이 전투의 승리로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는데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화랑도 정신이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미래 남북통일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황산벌 전투는 단순한 전투라기 보다는 빛나는 호국정신을 배우고 나라사랑과 국방의 소중함,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는 호국·국방의 대표적인 상징 지역이라 볼 수 있음.

(5) 1951년 11월 1일부로 논산지역에 세계 최대의 육군훈련소 (연무대)가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900만 명의 신병을 훈련시켜 배출하였음.

(6) 현재도 육군훈련소에서는 매년 12만 명의 신병들을 대상으로 훈련하여 배출(육군 신병양성의 47%)하고 있으며, 신병들을 면회하기 위해 연간 130여만명이 논산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국방의 중심도시라 할 수 있음.

(7) 그리고 2013년 이전에 서울지역에 위치해 있던 우리군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가 2017년에 논산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국방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음. 국방대학교는 군인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군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다수의 외국군들이 위탁교육을 받는 그야말로 국제적 성격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 K-국방교육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음.

(8) 국방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보면 안전보장대학, 안보과정, 국방관리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직무교육과정도 운영하여 고도의 실무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 즉 국방대학교는 국가안보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의 국방교육기관임.

(9) 이 외에도 주기적인 국내외 학술세미나(세계안보학대회, 국제학술세미나, 안보포럼, 방문학자 및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등)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10) 여기에 1995년 8월 4일 이후 국제평화활동센터를 운영하 면서 국제평화활동 메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을 운영,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11) 또한 국방대학교 내에 2011년 12월 1일 설립된 합동대학 교가 운영되고 있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발전시키기 위해 합동성 구현을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 및 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 등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12) 논산시 노성면지역에 창설한 육군항공 교육의 산실인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하고 초급장교 교육은 물론 기종전환반, 계기비행반, 교관 및 시험비행단, 조종사 전문반, 준사관전문반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육군의 모든 항공조종사들과 정비요원들의 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음.

(13) 인근지역인 익산에 육군부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우리군의 상징적 도시이면서 육군 부사관들의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 복무하는 군인들은 복무 및 교육기간에 수시로 논산지역에 위치한 부대를 방문 하는 등 국방 분야 특성화 지역으로 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계룡대 3군본부)



(육군항공학교)

5) 지역정서

- 계룡시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20,000여명이 군인가족
- 예비역 다수 거주 : 1,358명

(1) 계룡시에는 전체인구의 47%에 해당하는 20,000여 명의 군인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예비역도 1,358명이 거주하는 등 명실 공히 쏠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국방의 특성화 도시로 전국에서 친군정서가 가장 높은 도시임.

6) 자연 환경면

-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인 계룡산과 우리나라 3번째로 하천인 금강이 인접
- 대전광역시 생활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도시관리와 녹지·임야 환경 보전 정책으로 공해와 아토피를 피해 전원생활을추구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친환경 도시
- 2019년 기준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교통안전 지수 전국 1위,지역안전 지수 전국 2위로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
- 새로 조성된 대실지구의
북동쪽 ① 대실근린공원/동남쪽 ② 안산 도시자연 공원구역
남 쪽 ③ 준주거지역(음식점, 근린생활 시설)
서 쪽 ④ 근린공원, 유치원 및 초·중학교 등 신규 교육시설 조성 등
- 계룡시는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70%가 녹지·임야인 친환경 도시로 난개발을 할 수 없고 유해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임.

(1) 계룡시는 충청남도 남동부에 위치하여 동서간 8.4km, 남북 간 12.9km로 뻗어 있음. 동쪽으로 대전광역시, 서쪽과 남쪽으로는 논산시, 북쪽으로 공주시와 인접해 있다. 계룡산 동남의 구릉지로 산세에 따라 3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계룡시는 충청남도 남동부에 위치하여 동서간 8.4km, 남북 간 12.9km로 뻗어 있음. 동쪽으로 대전광역시, 서쪽과 남쪽으로는 논산시, 북쪽으로 공주시와 인접해 있음. 계룡산 동남의 구릉지로 산세에 따라 3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음.

(3) 계룡시는 행정 구역상 충청남도에 속해 있으나 계룡시와 대전을 오가는 시내버스도 운행되는 등 생활권이 대전광역시에 속함. 또, 두계천을 경계로 계룡시의 동북쪽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세동일원과 방동의 서부는 대전 도심과 거리가 멀고 지세가 분리되어 있어서 계룡시 생활권에 속함.

(4) 계룡시에는 지리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계룡산이 소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5) 계룡산과 연하여 남한에서 한강, 낙동강에 이어 3번째로 큰 강인 금강(401km)이 유유히 서해로 흘러가고 있어 천혜의 청정 및 생태의 보고지역임.

(6) 또한, 대전광역시 생활권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녹지·임야 환경보전 정책으로 전국 최고의 친환경 도시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7) 특히, 3군본부가 위치해 있고 시민 중 다수(47%)가 군인 및 군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계적인 도로관리 및 교통질서 확립으로 2019년 기준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 지역안전지수 전국 2위를 달성하는 등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이며, 새로 조성되는 대실지구 주변의 공원조성과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신규 조성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이 조성될 것임.



(이태조 왕궁터(신도안) 조감도)



(계룡시 인근지역의 금강 모습)



(계룡시를 상징하는 계룡문)



(계룡시 두계천)



(대실지구 아파트 단지)



(괴목정 공원)



(계룡산에서 내려다본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7) 역사·문화관광면

- 이태조(李成桂) 신도읍지 궁궐터 보존(계룡대 內)
 - 이태조가 신도읍지로 정하여 1년여 동안 궁궐 작업 터
- 계룡 9경 선정
 - 사계고택 : 예학의 대가 사계 김장생이 살았던 고택
 - 주초석 : 이태조 신도읍지 조성 시 사용하려던 주춧돌
 - 향적산 치유의 숲 : 향적산 일대 산림환경과 경관
 - 계룡문 : 계룡대로에 위치한 계룡시 첫 관문
 - 괴목정 : 신도안면 용동리에 위치한 정자
 - 천황봉 : 계룡산 최고봉(845m)
 - 암용추 : 암용이 살았다는 전설의 못
 - 입암저수지 : 두마면 입암리에 위치한 저수지
 - 계룡병영체험관 : 군문화 관련 전시, 체험

※계룡산과 연하여 천혜의 자연환경 및 문화재 소재
- 도시공원
 - 자연공원인 계룡산 국립공원 1개소, 도시공원 20개소 총 21개소 지정
 -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250㎡로 타 도시보다 많은 면적 확보
 - 산악관광자원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10개소(국사봉574m,제자봉342m, 머리봉735m, 천황봉 845.1m, 황적봉664m, 관암봉 525m, 시루봉 445m, 치개봉 664m 등 소재
- 문화재
 - 지방문화재 2점(신도안 주초석, 사계 고택, 은농재), 민속자료 1점(계룡산 삼신당), 문화재 자료 4점 등 총 7점의 문화재 소재
 - 기타 역사자원으로 경운단소, 농소리 우물, 김국광 신도비,하마비, 선바위, 순천 김씨 효열문 등이 전설과 함께 분포

- 인근지역에 백제고도(부여, 공주)에 다양한 백제문화재 소재
 - 공주지역(30분) : 공산성, 무령왕릉, 공주박물관 등
 - 부여지역(50분) :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소산성, 궁남지, 부여박물관 등
- 인근지역 일대 역사적인 유명사찰 다수 소재
 - 공주 동학사(5분), 감사(30분), 신원사(20분), 마곡사(40분), 서산 부석사(100분), 예산 수덕사(80분), 논산 관촉사(은진미륵, 30분), 보은 속리산(70분) 등
- 유성온천(10분), 온양온천(50분), 덕산온천(60분) 인접 위치
 - 4계절 국내외 관광객 다수가 방문하는 국민 관광지
- 지역 문화축제
 - 매년 軍문화 소재로 독특한 軍문화축제 개최(2007년 이후)
 - ※ 軍 문화축제의 주요내용은 3군 의장대 및 군악대 공연, 일반인 공연, 軍문화 전시, 병영체험, 각종 이벤트 등을 소재로 매년 10월 중 개최
 - ※ 매년 100만 명이상 축제장 방문, 3회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 (2017~2019년)
 - 6.25전쟁 발발 72주년 기념 세계軍문화엑스포 개최
 - ※ 개최시기 : 2022. 10. 7 ~ 10. 23(17일간)
 - ※ 예산규모 : 196여억 원
 - ※ 세계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의지를 쏠 세계에 알리는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앞당기는 전기 마련기대
 - 기타 마을별 민속축제, 팔거리 축제, 왕대리 백중놀이, 산신제등 다양한 축제가 연중 개최

(1) 계룡은 600년 前 이太祖(李成桂)가 직접 5일간 방문하여 정찰한 후 새로운 도읍지로 정하여 1년여 동안 전국지역에서 인부를 모아 궁궐터 작업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로써 현재는 궁궐터 주초석 115개가 계룡대 내에 충남유형문화 제 65호로 지정되어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관리 중에 있음.

(2) 계룡지역은 계룡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써 계룡산 최고봉인 천황봉을 비롯하여 주초석(이태조 신도읍지 조성시 사용하려던 주춧돌), 향적산 치유의 숲(향적산 일대 산림환경과 경관), 계룡문(계룡대로에 위치한 계룡시 첫 관문), 괴목정(신도안면 용동리에 위치한 정자), 천황봉(계룡산 최고봉 845m), 암용추(암용이 살았다는 전설의 못), 입암저수지(두마면 입암리에 위치한 저수지), 계룡병영체험관, 사계 김장생이 살았던 고택인 사계고택 등을 계룡 의 9경으로 정함.

(3) 계룡에는 자연공원인 계룡산 국립공원 1개소와 시내지역 곳곳에 도시공원 20개소가 있어 총 21개소를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 1인당 공원녹지면 적은 250㎡로 타 도시보다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음.

(4) 산악 관광자원으로는 계룡산을 중심으로 국사봉(574m), 제자봉(342m), 머리봉(735m), 천황봉(845.1m), 황적봉 (664m), 관암봉(525m), 시루봉(445m), 치개봉 (664m) 등 총 10개가 있음.

(5) 문화재는 지방문화재 2점(신도안 주초석, 사계 고택, 은농재), 민속자료 1점(계룡산 삼신당), 문화재 자료 4점 등 총 7점의 문화재가 보존되고 있으며, 기타 역사자원으로 경운단소, 농소리 우물, 김국광 신도비, 하마비, 선바위, 순천 김씨 효열문 등이 전설과 함께 분포되어 있음.

(6) 또한 공주 동학사, 갑사, 신원사, 마곡사, 서산 부석사, 예산 수덕사, 논산 관촉사(은진미륵), 보은 속리산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7) 계룡시로부터 가까운 지역인 백제고도인 공주에는 공산성, 무령왕릉, 공주박물관 등이 부여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소산성, 궁남지, 부여박물관 등 다양한 백제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음.

(8) 그리고 인근지역인 대전의 유성온천, 아산시의 온양온천, 예산군의 덕산온천이 있어 4계절 국내외 관광객 다수가 방문하는 국민 관광지로 명성이 높음.

(9) 지역 문화축제로는 2007년 이후 매년 軍문화 소재로 독특한 軍문화축제 개최되고 있는데 이 축제의 주요내용은 3군 의장대 및 군악대 공연, 일반인 공연, 軍문화 전시, 병영체험, 각종 이벤트 등을 소재로 매년 10월 중 개최되는데 매년 100만 명이상 축제장 방문하는 명품축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회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수상하는 영예를 얻음.

(10) 6.25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2022년에는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17일간에 걸쳐 13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세계軍 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함. 이 엑스포의 개최 목적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보훈의 뜻을 전하고 세계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의지를 쏠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임.

(11) 이러한 축제이외에도 계룡시에서는 마을별 민속축제, 팔거리 축제, 왕대리 백중놀이, 산신제 등 다양한 축제를 년 중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계룡대 통일탑)



신도안 주춧돌(충남유형문화재 65호)



(사계고택)



(숫용추)



(동학사)



(군문화축제)

8) 접근성(교통편리성)

■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전국 3시간 생활권

◆ 전국어디서나 공항, 철도(KTX), 고속도로, 국도, 충청권 광역
철도망(개통예정) 등 교통망으로 전국 3시간 생활권임

- (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2시간 40분(205km), 청주국제 공항에서 1시간(73km) 거리
- (철도) 수도권에서 계룡역까지 경부선, 호남선 철도(KTX)로 40~50분 소요

철도 시간표 및 운행횟수

- 호남선 계룡역 1일 60회 운행(10~30분 간격)
- 경부선 대전역 1일 270회 운행(5분~10분 간격)
- 호남선 서대전역 1일 98회 운행(10분~20분 간격)

-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호남, 경부(회덕·비룡JC), 대전통영(산내JC), 논산천안(논산JC), 당진영덕(유성JC), 서해안(당진JC) 고속도로가 대전 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근성 우수
- (광역철도) 2022년 충청권 광역철도망 개통시 대전역에서 전철로 15분이면 도착
 - 대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20분대 접근
 - 대중 교통수단은 대전역~서대전역~대전서부터미널~계룡역 노선으로 대전 시내버스(202번, 2002번 / 배차간격 10분) 운행 중에 있음.
 - 계룡대에서 국방부간 정기 업무연락 버스 무료운행 : 1일 2회

(1) 계룡시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앙지역에 위치하여 전국어디서나 공항, 철도(KTX), 고속도로, 국도, 충청권 광역철도망(개통예정) 등 교통망 활용 시 전국 3시간 내 생활권임.

(2) 공항 이용 시 인천 국제공항에서 2시간 40분, 청주 국제공항에서 1시간 거리, 철도 이용 시 수도권에서 계룡역까지 경부선, 호남선(KTX)로 40~50분 소요됨.

(3)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호남, 경부(회덕·비룡 JC), 대전통영(산내 JC), 논산천안(논산 JC), 당진영덕(유성 JC), 서해안(당진 JC) 고속도로가 대전 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되어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4) 2022년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계획대로 개통 시에는 대전역에서 전철을 이용 1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여 교통이획기적으로 편리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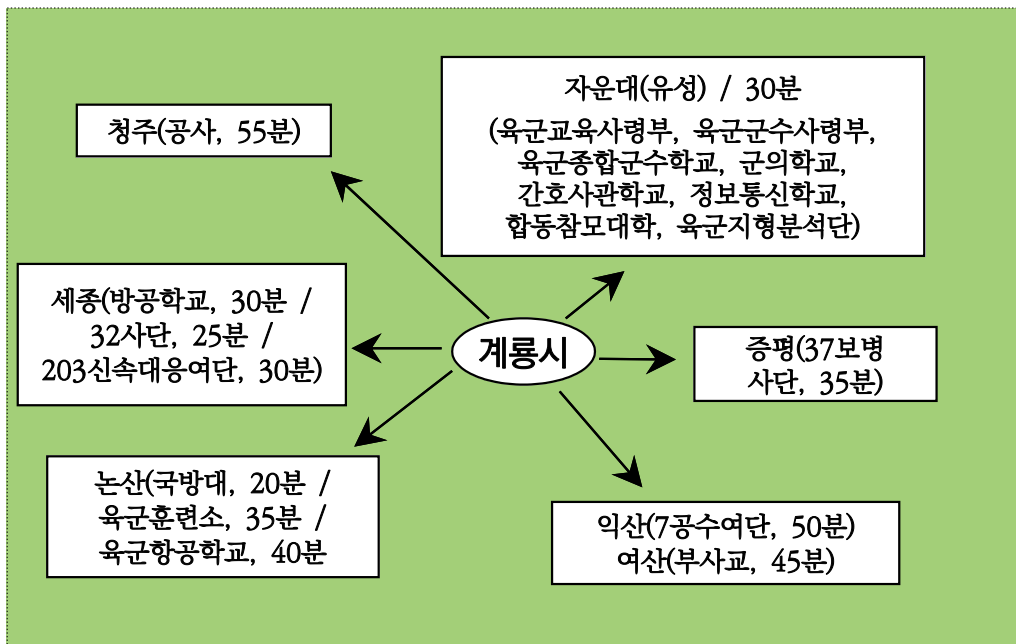
(5) 또한 대전시에서 시내버스(202번, 2002번)가 1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며, 계룡대 근무장병 편의를 위해 1일2회 계룡대와 국방부가 무료 업무연락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장병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음.

(6) 결론적으로 현재의 교통 인프라와 향후 추진예정인 교통망 구축사업 등을 고려 전국 최상의 접근성을 구비한 명품 도시임.

9) 국방교육·훈련 여건

(1)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국방 특성화 지역

- (계 룡)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국방출판지원단, 공군기상단 등
- (대 전)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종합군수학교, 군의학교, 간호사관학교, 정보통신학교, 합동참모대학, 육군지형분석단 등
- (세 종) 방공학교, 32사단
- (논 산)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 (익 산) 육군부사관학교, 7공수여단
- (청주/증평) 공군사관학교, 37사단



〈그림-2〉국방교육·훈련 여건

(2) 계룡시내에는 육·해·공군본부,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국방출판지원단, 공군기상단 등이 위치해 있고

(3) 인근지역인 대전에는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종합군수학교, 군의학교, 간호사관학교, 정보통신학교, 합동참모대학, 육군지형분석단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방공학교와 32사단 사령부, 논산에는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와 논산과 인접해 있는 여산 일대에는 육군부사관학교와 7공수여단이

(4) 대전과 인접해 있는 청주에는 공군사관학교, 증평에 37사단 사령부가 위치해 있어 계룡시로부터 20~65분내 거리에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등 다양한 부대가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조차 찾아보기 드문 국방 특성화 지역임.



(계룡대)



(국방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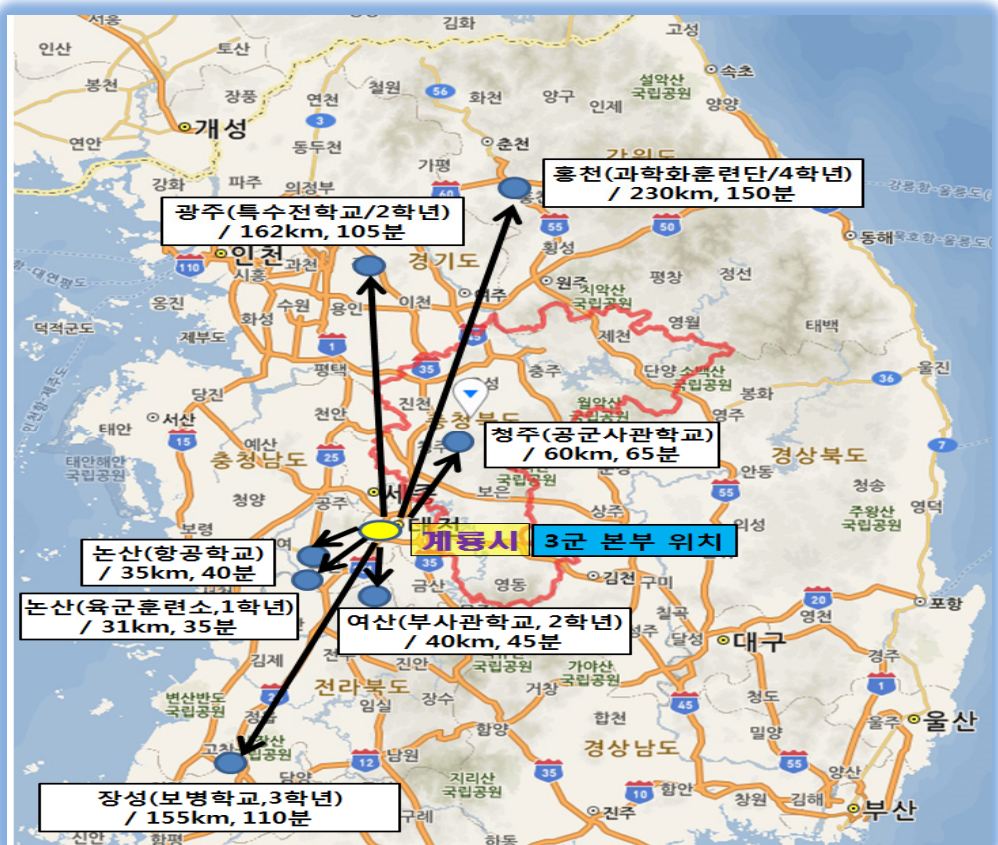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종합군수학교)

(5) 각종 훈련여건

- 충남 계룡 계룡대 : 육·해·공군 3군본부 실무체험 훈련
-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35분) : 육군 신병훈련
- 논산 육군항공학교(20분) : 육군 항공분야 교육·연구·훈련 협력
- 전북 여산 육군부사관학교(40분) : 육군 부사관 과정 훈련
-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100분) : 공수 훈련
-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40분) : 공군생도 교육
- 전남 장성 보병학교(110분) : 각종 병과 장교과정 훈련
- 강원 홍천 과학화훈련장(150분) : 과학화 훈련



〈그림-3〉 각종 훈련여건

(6) 또한 다양한 부대에서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 훈련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 확인이 수월하여 훈련정책 발전 시 충분히 야전부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



(육군학생군사학교)



(군수사령부)



(특수전학교)



(KCTC)



(육군훈련소)



(합동참모대학)



(육군부사관학교)



(7공수여단)

(7) 리더십, 인성 등과 관련된 장소

■ 계룡시 주변 전시관 및 사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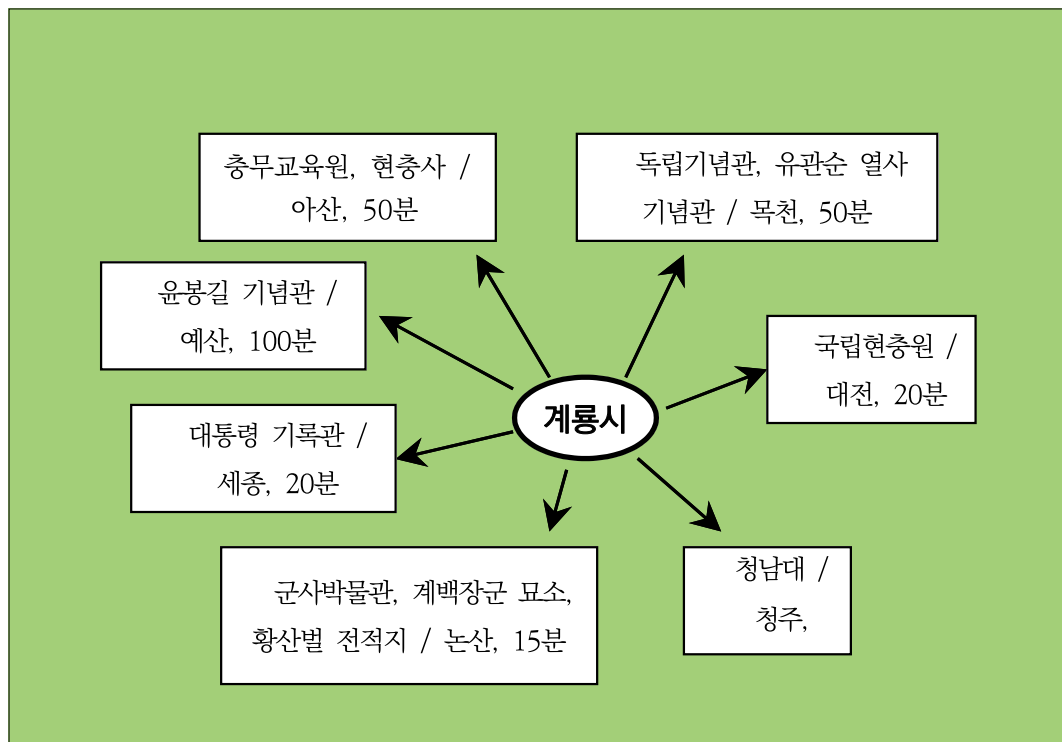
- 충무교육원(아산, 50분) : 충무공 이순신 장군 관련 교육협력
- 현충사(아산, 50분) : 호국정신, 나라사랑 리더십 함양
- 독립기념관(천안 목천, 50분) :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 견학/체험
- 국립현충원(대전 유성, 15분) : 나라사랑 보훈정신 함양
- 유관순 열사 기념관(천안 목천, 50분) : 독립운동 정신 함양
- 윤봉길 의사 기념관(예산, 100분) : 독립운동 정신 함양
- 청남대(충북 청주, 40분) : 역대 대통령 기념관

■ 항일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 민족적 성격의 신흥종교 집단 소재지 : 110여개의 신흥종교
-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창씨개명을 반대 항일운동 참여
- 두계장터 3.1운동 : 4.1독립만세운동 발상지
- 한훈(韓焄)의 독립운동 : 광복 후 재건광복단 조직
- 양기하(梁基瑕) : 김구와 함께 한국노병회 조직
- 이을규(李乙奎) : 김좌진이 주도한 신민부와 한족총연합회 참여
- 김지수(金志洙) : 항일의지로 자결순국
- 종교인들의 항일투쟁 : 1925년 계룡지역에 삼신당 세워 독립운동 지원
(독립운동가 은신처 제공, 독립운동가 지원활동)

(1) 또한 국방분야 발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관, 리더십,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과 사적지 등이 다수위치하고 있음.

(2) 예를들면 아산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관련 교육협력 가능한 충무교육원, 천안에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 견학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 그리고 충남지역 곳곳에 나라사랑, 보훈정신 배울 수 있는 국립현충원,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현충사, 독립운동 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 윤봉길의사 기념관,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청남대와 대통령기록관, 논산 군사박물관, 계백장군 묘소, 황산별 전적지 등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장소임.



〈그림-4〉리더십, 인성 관련 교육장소

(3) 또한, 계룡시는 과거로부터 길지로 소문이나 민족적 성격의 다양한 신흥종교가 집단(110여개)적으로 소재했던 지역으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창씨개명을 반대하며 항일운동 참여하였으며, 두계장터에서는 3.1운동에 참여하여 4.1독립만세운동 발상지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임.

(4) 계룡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는 광복 후 재건광복단 조직했던 한훈(韓煥), 김구와 함께 한국노병회 조직했던 양기하(梁基暇), 김좌진이 주도한 신민부와 한족총연합회 참여한 이을규(李乙奎), 항일의지로 자결 순국한 김지수(金志洙), 1925년 계룡지역에 삼신당 세워 독립운동을 지원(독립운동가 은신처 제공, 독립운동가 지원활동)했던 종교인 등 다수의 독립운동가가 활동하였음.

10) 국방 분야 연구협력 여건

- 국방정책전문연구기관 유치 노력 : 제2공공기관 이전 시
 - 국방연구원 등
-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 : 2029년
 - 전력지원체계 업종 유치
 - ※ 무기체계 업체 중 무인시스템, 드론, 항공기 정비, 사이버 교육장비 및 웨어러블플랫폼 참여 업체, 국방 M&S, 전력 지원체계 기반 빅데이터센터 등
- 인근지역 정부출연 및 국방관련 기관 다수 소재
 - 대덕연구단지 : 약 1,700개 기관 입주

정부출연기관	국·공립기관	비영리기관	교육기관	일반기업
26개	24개	23개	7개	1,600여개

-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 방위사업청 산하연구기관
 -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추진(국방클러스터)
 - 대전 국방벤처센터 및 각 대학 국방관련연구소 등

■ 논산시내 인근지역 일반대학 국방관련 학과 다수 운영

구분	지역	관련학과	비고
건양대	논산	군사학과	육군 협약학과
충남대	대전	국방융합학부	
대전대	대전	군사학과	육군 협약학과
대전과학기술대	대전	군사학과	
대덕대	대전	군사학부	
우송정보대	대전	조리부사관학과	

- 각 대학 산합협력단과 유기적인 연구협력

(1) 계룡시는 3군본부가 위치한 국방 특성화 시로써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서울에 있는 국방연구원을 유치하여 3군 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 분야 정책 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인 근 지역인 논산시에는 전국 최초로 국방국가산업단지 2029년 조성 완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이 산업단지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무기체계 업종 중 무인시스템, 드론, 항공기정비, 사이버 교육장비 및 위리어 플랫폼 참여업체와 국방 M&S, 전력기반체계기반의 빅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방위사업청과 최적의 협력여건을 갖추게 됨.

(3) 또한, 인근지역인 대전지역 대덕연구단지내에는 정부출연기관 26개, 국·공립기관 24개, 비영리기관 23개, 일반기업 약 1,600여개 등 총 1,700여개의 기관이 입주되어 있으며 이중에서도 방위사업청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위치해 있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국방벤처센터 및 각 대학의 국방관련 연구소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4) 여기에 논산, 대전지역은 일반대학에 국방관련학과(학부) 등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전국 최고의 국방특성화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덕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등에 운영 중인 군 관련 학과(학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단지)



(각 대학 국방관련학과)

11) 정부부처와의 협력여건

(1) 세종, 대전 정부청사 내 다수의 정부부처 소재

- 세종 정부청사 : 16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상주

- 대전 정부청사 : 1부 7청, 1소속기관 상주

* 각종 연구자료 수집 및 활용, 제대군인 정책교육 등 최적의 여건

(2) 근거리 세종시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부청사에 16개 중앙부처와 각종 소속기관들이 상주하여 국가 행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 정부청사에는 중소 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부 7청과 1개 소속기관 등이 입주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노력중임.

(3) 이러한 세종 및 대전 정부청사에 다양한 업무기능은 최적의 현장학습 장(場)이며, 각종 연구자료 수집 및 활용에 매우 유용하고 국가보훈처를 통해 제대군인 정책교육 등 최적의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음.



(세종정부청사)



(대전 정부청사)

(4) 병무관련 기관 근접 위치(대전 정부청사) : 중앙병무청

■ 주요 수행업무/기능

- 징집·소집 - 전시 병력동원 - 병역자원관리 등 병무행정
- 병역 판정 -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 육·해·공군 병 모집 및 선발
- * 전반적인 병역이행 및 병역자원 관리업무 수행

(5) 근거리 대전의 정부청사 내에 전반적인 병역이행 및 병역자원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병무청이 있어

(6) 국 방정책 발전에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 병무정책관련 연구 및 제대군인 관련 정책발전 협력을 위한 최상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입영 신체검사)



(병역의무 설명)

12) 생활 편의성

■ 교육시설

- 유치원 8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 대학교 : 계룡시 인근 대전, 공주, 세종에 종합대학교 7개
- 다양한 평생교육시설 : 계룡시 문화센터, 건양대 평생교육관, 본부교회, 홈플러스 문화교실 등

■ 의료시설

-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충청병원 등 4개 종합병원
- 국군통합병원, 계룡대지구병원, 논산지구병원 등

■ 대형마트

- 계룡과 인근지역인 대전, 세종 등에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쇼핑센터 다수 입점
- 국군복지단 운영 대형 쇼핑센터, 목욕시설, 문화센터

■ 최초의 민·관·군 복지타운 단계적 조성(2011.11.4일 협약)

- 국방부 국군복지단, 계룡시, 계룡대근무지원단 공동개발
- 스포츠센터, 쇼핑센터, 숙박시설, 병·의원, 도서관 등

■ 5일장 상시운영

- 계룡 : 화요일(엄사리), 금요일(신도안면, 군인아파트 지역)
- ※ 화요장터 : 전국지역 이동상인 집결, 다양한 전국 특산물 판매

(1) 계룡시 인구대비 교육시설이 충분하며 지역 내 소재한 대부분의 학교에는 군인 가족들이 다수 재학 중으로 국방부 소속 가족들의 자녀들이 이전해 올 경우 조기 적응이 가능함.

(2) 인근지역인 대전, 세종, 공주, 논산 등에 3개의 국립대와 4개의 4년제 종합대학과 다수의 전문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교육환경이 매우 양호함. 또한, 계룡시와 지역대학, 3군본부교회, 대형 쇼핑센터, 동·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3) 인근지역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충청병원등 4개 종합병원과 국군통합병원, 계룡대지구병원, 논산지구병원 등 군 관련 의료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또한, 계룡과 인근지역인 대전, 세종 등에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쇼핑센터 다수 입점해 있고 국군복지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형 쇼핑센터, 목욕시설, 문화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군인가족들과 시민들이 저렴하고도 최고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5) 여기에 2011년 11월 4일에 국방부 국군복지단, 계룡시, 계룡대근무지원단 공동으로 계룡시에 최초의 민·관·군 복지타운(스포츠센터, 쇼핑센터, 숙박시설, 병·의원, 도서관등)을 단계적 조성기로 하여 향후 계룡시는 전국 최고의 복지타운이 될 것임.

(6) 그 리고 계룡시에서는 화요일(엄사리), 금요일(신도안면, 군인아파트 지역)에 정기적으로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특히 화요장터는 전국지역 이동상인 집결, 다양한 전국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새로운 장터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계룡고등학교)



(대형 쇼핑센터)



(건양대학교 병원)



(금요장터)

13) 지역 내 공동사용 가능시설 다수 위치

■ 軍 체력단련장(골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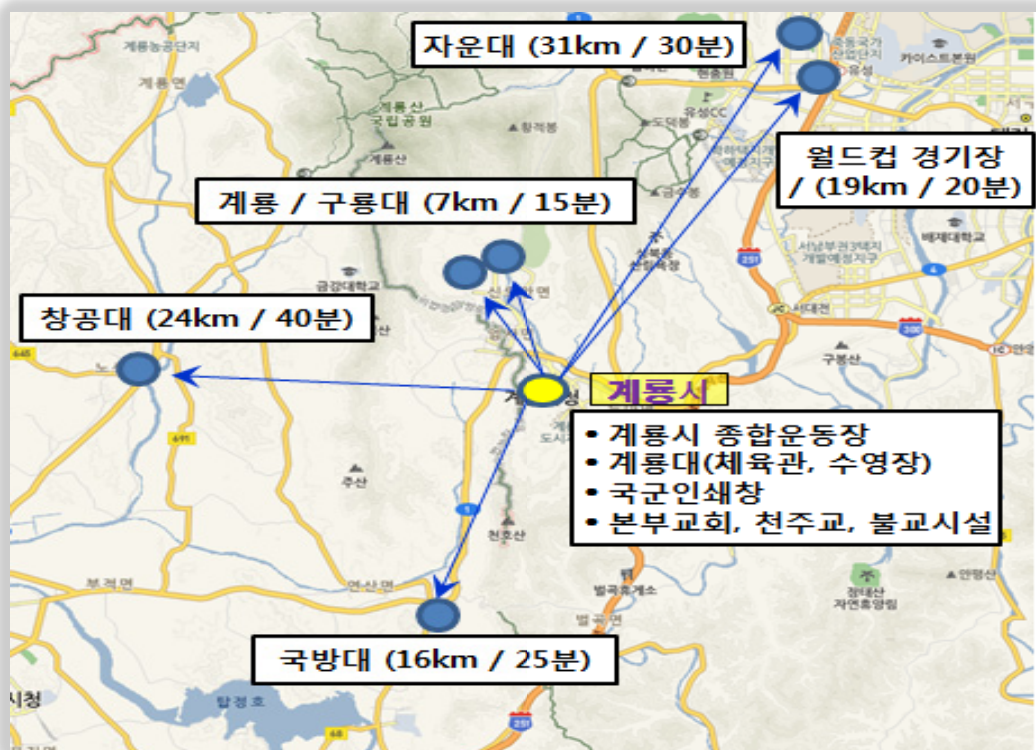
계룡대/구룡대	자운대	창공대	국방대
18홀	9홀	9홀	공사중(9홀)

- 최첨단, 최신식 시설을 갖춘 계룡종합운동장 운영
- 대전 유성구에 월드컵경기장 위치(15분)
- 계룡대 내 다양한 운동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구비

※ 충남도민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17. 6. 15 ~ 18/2019. 7~8)

- 국방출판지원단 : 지근거리 위치로 인쇄 업무 효율적 지원 가능
- 3군 본부교회, 천주교, 불교시설



〈그림-5〉지역 내 공동사용 가능시설

(1) 계룡시는 계룡대가 위치해 있어 국방부 등 국방관련 기관이 이전 시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2) 군체력단련장(골프장) 시설은 계룡대/구룡대(18홀), 자운대(9홀), 창공대(9홀)와 현재 공사 중인 국방대학교 9홀 등과 이외에도 인근 지역에 다수의 민간 골프장이 운용되고 있으며, 계룡시에는 2017년 충남도민 체육대회와 2019년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최첨단, 최신식 시설을 구비한 종합운동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3) 인근지역 유성(20분)에는 2002년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었던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음. 또한 계룡대 영내에도 크고 작은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이 운영되고 있음.

(4) 이 밖에도 지근거리에 국방출판지원단이 위치하고 있어 각종인쇄협력이 용이하고, 육·해·공군 본부교회, 천주교, 불교 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어 종교활동에 최적지임.



(계룡체력단련장)



(계룡 종합운동장)



(대전 월드컵경기장)



(3군본부 교회)

14) 정부부처와의 협력 여건

- 세종 정부청사 : 16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상주
- 대전 정부청사 : 1부 7청 소속기관 상주
- 병역특례관련 협력 : 중앙병무청(대전정부청사 내)

(1) 인접지역인 세종과 대전지역에 대한민국 대표적인 정부청사23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이 상주하고 있어 방위산업 관련 다양한 협조가 가능함.

(2) 또한 대전청사 내 중앙병무청이 위치하고 있어 방위산업체 병역특례기업지정 등에 관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함.



(세종정부청사)



(대전정부청사)

15) 육·해·공군본부와의 협력 여건

- 계룡시에 육·해·공군본부 소재
- 지역 내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육·해·공군 지원부대 다수 소재
- 육·해·공군 주요지휘관 및 관계관 회의 간 상호협력 가능

(1) 인접지역인 계룡시에 육·해·공군본부가 함께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3군간 최상의 협력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2) 지역 내에 국방부 근무지원단을 비롯하여 공공기상전대, 육·해·공군본부 군악대 및 의장대 등 다수의 지원부대가 소재하고 있어 3군 간 최적의 협력여건을 구비하고 있음.

(3) 또한, 3군본부에서 주기적으로 3군 주요지휘관 및 관계관들이 수시로 모여 협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음.

16) 위기 대응 용이성

(1) 긴급유사시 작전수행여건 최적

- 3군 본부와 근접 유사시 신속한 작전/능동적인 대처용이
- 現 계룡대 경계부대인 203신속대응여단 예하대대 인근지역 위치로 경계제공 가능
- 유사시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으로 소산대책 용이

(2)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지속 선정

- 2017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선정(교통안전지수)
-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 충남지역 안전지수 최고도시 선정
(재해재난 분야)
- 2018년 범죄 없는 도시 선정(여성가족부, 법무부 주관)
※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범죄 없는 도시
- 2019년 지역대학(건양대)와 안전도시 협약(2019.2.1.)



(군 의무헬기 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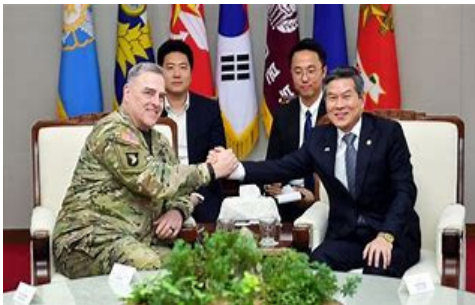
(수색정찰)

17) 외국군과의 교류 용이성

- 계룡대 방문 외국 무관단
- 외국의 군 주요직위자 방문
- 국방대학교 수탁교육 외국학생

(1) 계룡대는 대한민국의 3군의 모든 정책을 다루는 기관으로 수시로 외국의 군 주요 직위자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곳임. 또한 주한 외국군 무관단들도 각종 행사, 교류협력 차원에서 빈번하게 방문하는 곳이기도 함.

(2) 그리고 인근지역인 논산에 위치한 국방대학교는 쏘 세계 20여 개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머무르고 있는데 수탁교육중인 외국군들에게 교육기간 중 3군본부 방문과 국방부 이전시 국방부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다각적인 외국군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외국군 주요직위자 국방부 방문)



(국방대학교 외국군 교육생)



(계룡군문화축제시 무관단 방문)



(외국군과의 교류)

18) 계룡시 미래 발전 Vision 측면

(1) 향후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 충분

- 세계軍문화엑스포를 통한 세계평화도시 이미지 구축
-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시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구상

(2) 2030 계룡발전 8대 핵심과제 제시 통한 미래발전 청사진 제시

- ① 기후 적응을 대비한 물 순환 기반 구축(2021~2027/470억)
- ② 두계천 둘레길 지속가능한 관광체계 구축(2021~2030/390억)
- ③ 향적산권 종합개발(2021~2027/473억)
- ④ 계룡역 환승센터 건립(2021~2024/200억)
- ⑤ 계룡형 기적의 놀이터 조성(3개소)(2021~2024/120억)
- ⑥ 계룡 첨단녹색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2025/250억)
- ⑦ 빅데이터기반의재난재해안전관리통합플랫폼구축(~2021/10억)
- ⑧ 계룡 시뮬레이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2027/6억)

(3) 계룡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 좋은 청정 국방 모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2030 계룡발전」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음.

(4) 이 중에서 국방 모범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첨단녹색 국방산업단지 조성,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재해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갈 것임.

(5) 충청남도 국방산업관련 발전 노력 지속

- 충남도 국방 지원체계산업 발전전략 제시
 - 충남 미래 경제발전전략과 연계, 남부권역 “국방지원체계 산업” 육성
 - 충남 남부권 첨단 국방클러스터 조성
-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 2029년 완공

(6) 충청남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부권역인 계룡, 논산, 금산을 중심으로 첨단 국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국방분야 특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임.

(7) 인근지역인 논산지역에 국방국가산업단지가 2029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산학융합지구 조성키 위한 노력이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음.



(첨단 국방클러스터)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19) 기 타

(1) 계룡대 전국 최고의 나라사랑 견학장소

- 2011년 이후 7년 만에 20만 명 방문
- 자유학기제 체험참가, 군사학과 학생, 안보단체 등 지속적 방문
- ※ 국방부 이전 시 계룡대 견학과 연계 방문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하여 다수의 국민 방문 가능

(2) 전국에서 친군정서가 가장 높은 도시

- 계룡시민의 47%가 군인가족
- 장기복무 예비역 다수 거주(1,358명)
- ※ 공공기관 이전 시 구성원 조기 적응 및 이질감 최소화 가능

(3) 계룡시는 계룡시민의 47%가 군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 최고의 친구도시임. 또한 다수의 예비역들이 전역 이후 계룡시에 정착하는 인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전입해 오는 군인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군인가족)



(3군이 함께)

제7장 논산시 유치 당위성

1. 개요

- 시 승격 : 1996. 3. 1(1914년 논산군 설치이후 29년 경과)
- 행정구역 : 2읍 11면 2동
- 세대 및 인구수 : 57,196세대/122,981명(외국인 3,701명 포함)



(논산시청 전경)

2. 지역유래

1) 논산의 연원은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 아니며 18세기 중반 '여지도서' 단계에서 논산리라는 명칭으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함. 지명의 기원에는 논과 산이 많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논뢰'가 가장 먼저 생겨난 지명으로 이후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논산으로 고정되었다는 의견이 있고

2) 지역사적 관점에서 농사짓는 논가운데 있는 작은 동산을 이르는 ‘논뒀’에서 온 것이라는 학술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함.(2014년 건양대 충남지역문화연구소 학술발표 시)

3. 논산시 연혁

1) 논산시 주요 연혁을 정리해 보면, 1914년 4월 1일에 일제 총독부에서 군사·경찰 통치기구로써 연산, 은진, 노성, 석성군을 병합하여 논산군이 설치되었고 1917년 10월 1일에는 대조곡면을 은진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31년 4월 1일에는 강경면이 강경읍으로 승격(1읍 14면)되었음.

2) 1938년 10월 1일에는 논산면이 논산읍으로 승격(2읍 13면) 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행정기관으로 논산군이 설치되었음. 1963년 1월 1일에는 구자곡면과 황화면을 병합하여 연무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83년 2월 15일에 가야곡면 중산리 및 양촌리 중 일부가 양촌면으로 편입되고 양촌면 신양리가 연산면으로 편입되었음.

3) 1989년 1월 1일에는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를 두마면에 편입되었고 1990년 2월 19일에는 두마면에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되었음. 1996년 3월 1일에는 논산시 승격과 함께 논산읍이 취암동과 부창동으로 분리(2읍 12면 2동)되었으며 2003년 9월 19일에는 논산시에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분리(2읍 11면 2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계룡시, 논산시 개청)

- ▷ 1914.4.1 : 일제 총독부에서 군사, 경찰 통치기구로써 연산, 은진, 노성, 석성군을 병합 논산군 설치
- ▷ 1917.10.1 : 대조곡면을 은진면으로 개칭
- ▷ 1931.4.1 : 강경면이 강경읍으로 승격(1읍 14면)
- ▷ 1938.10.1 : 논산면이 논산읍으로 승격(2읍 13면)
- ▷ 1948.8.15 : 대한민국 정부수립 행정기관 논산군 설치
- ▷ 1963.1.1 : 구자곡면과 황화면을 병합하여 연무읍으로 승격
- ▷ 1983.2.15. : 가야곡면 중산리 및 양촌리 중 일부가 양촌면 으로 편입, 양촌면 신양리가 연산면으로 편입
- ▷ 1989.1.1 :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를 두마면에 편입
- ▷ 1990.2.19 : 두마면에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
- ▷ 1996.3.1 : 논산시 승격과 함께 논산읍이 취암동과 부창동으로 분리(2읍 12면 2동)
- ▷ 2003.9.19 : 논산시에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분리(2읍 11면 2동)

4. 논산시 분야별 특성

1) 대한민국 충청남도 남부에 있는 시. 우리나라 주요 식량 공급지이며, 연무읍에 육군훈련소가 있어 군사적 기능도 큰 곳임. 1996년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었음. 행정구역은강경읍·연무읍·가야곡면·광석면·성동면·노성면·상월면·부적면·연산면·벌곡면·양촌면·은진면·채운면·취암동·부창동 등 2개읍 11개면 2개동이 있음(행정동 기준, 법정동 기준은 11개). 시청소재지는 시민로로 면적 554.81㎢, 인구는 122,981명(외국인 3,701명 포함)임.(2021. 12월 기준)

2) 논산시는 조선시대의 은진현·연산현·노성현 등 3개의 현이 있던곳 이어서 풍부한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음. 지금의 강경읍·연무읍·은진면·채운면·가야곡면·취암동·부창동 등 서남부는 옛은진현 지역에, 연산면·두마면·부적면·벌곡면·양촌면 등의 동남부는 옛 연산현 지역에, 노성면·상월면·광석면 등 북부는 옛 노성현 지역에 해당함. 성동면은 본래 석성군 원북면 지역이었음.

3) 1895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3현이 군이 되어 공주부 관할이 되었다가 1896년 도제 실시로 충청남도에 속했음. 1906년 월경 지정리때 여산군의 두입지(斗入地)인 채운면이 은진군에 소속 되었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은진군·연산군·노성군의 소사면을 제외한 전역과 석성군·공주군·진잠군의 일부 등이 통합되어 논산군으로 이름을 바꾸었음. 1931년 강경면이, 1938년 논산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음.

4) 조선 후기 3대 시장의 하나로 서해 최대의 포구였던 강경포를 중심으로 상업도시로 발전한 강경읍은 군산항 개항, 경부선 개통, 호남선 개통 등으로 그 기능이 점차 축소 되다가 6·25전쟁 이후 결정적으로 쇠퇴했음. 6·25전쟁 이후 육군제2훈련소가 들어섬에 따라 성장한 구자곡면이 1963년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 일원을 편입, 연무읍으로 승격했음. 1996년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면서 논산읍이 11개동으로 분할되었음. 2003년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었음.

5) 1995년 시로 승격된 이후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가 지속되었음. 2000년 인구 14만 2,828명에서 2005년 13만 5,210명, 2010년 13만 311명, 2015년 12만 4,232명으로 감소했음. 2020년 기준 인구는 11만 6,888명이며 가구수는 5만 7,746가구, 가구당 인구는 2.02명임. 읍면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연무읍(1만 3,769명)과 강경읍(8,384명)에 인구가 가장 많으며 면 단위에서는 연산면(6,143명)·양촌면(6,308명) 순으로 많음. 벌곡면(2,495명)과 채운면(2,272명)에는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함. 한편 취암동(3만 4,966명)에는 시 전체 행정구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

6) 논산시는 조선시대의 은진현·연산현·노성현 등 3개의 현이 있던 곳이어서 풍부한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음. 지금의 강경읍·연무읍·은진면·채운면·가야곡면·취암동·부창동 등 서남부는 옛 은진현 지역에, 연산면·두마면·부적면·벌곡면·양촌면등의 동남부는 옛 연산현 지역에, 노성면·상월면·광석면 등 북부는 옛 노성현 지역에 해당함. 성동면은 본래 석성군 원북면 지역이었음.

7) 1895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3현이 군이 되어 공주부 관할이 되었다가 1904년 도제실시로 충청남도예 속했음. 1906년 월경 지정리때 여산군의 두입지(斗入地)인 채운면이 은진군에 소속 되었음.

8)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은진군·연산군·노성군의 소사면을 제외 한 전역과 석성군·공주군·진잠군의 일부 등이 통합되어 논산군으로 이름을 바꾸었음. 1931년 강경면이, 1938년 논산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음. 조선후기 3대 시장의 하나 최대의 포구였던 강경포를 중심으로 상업도시로 발전한 강경읍은 군산항 개항, 경부선 개통, 호남 개통 등으로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되다가 6·25전쟁 이후 결정적으로 쇠퇴했음.

9) 6·25전쟁 이후 육군 제2훈련소가 들어섬에 따라 성장한 구자곡면이 1963년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 일원을 편입, 연무읍으로 승격했음. 1996년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면서 논산읍이 11개동으로 분할되었음. 2003년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었음.

10) 논 산시의 남동부에는 대둔산(878m) 줄기의 월성봉(650m)·바랑산(555m) 등이, 북동부에는 계룡산(845m) 줄기의 황적봉(664m)·관암산(826m)·향적산(574m) 등이 산지를 이루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와 넓은 평야를 이룸.

11) 계 룡산과 대둔산 줄기에서 각각 발원한 노성천·연산천과 논산 천등이 시의 중앙을 서쪽으로 흘러 강경천과 합류한 뒤 금강으로 흘러들. 토양은 대부분 하천에 의해 퇴적된 충적토이며, 하천 유역에는 넓고 기름진 논산평야가 있음.

12) 연 평균기온은 13.5℃ 내외이며, 1월평균기온은 -5.0℃ 내외, 8월평균기온은 28.2℃ 내외, 연평균강수량은 1,441.9mm 정도로 해마다 기온과 강수량이 상승하고 있음. 침엽수림이 임야의 절반을 차 지하며, 동부 산지에는 전나무·잣나무·대나무·차나무·동백 나무등의 다양한 수종이 분포함.

13) 총경지면적 210.64㎢ 가운데 논이 154.34㎢, 밭이 56.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율은 38%로 비교적 높은 편임(2006). 그밖에 임야면적 241.2㎢, 과수원 면적 3.29㎢임.

14) 주요농산물은 쌀·보리·채소·딸기·사과 등이며, 그밖에 양송 이·영지 등의 버섯류와 취나물 등도 많이 남. 특히 버섯재배가 활발하여 1년에 258t을 생산함. 백작약·모란·당귀 등의 약용작물과 잎담배·인삼 등이 소규모로 재배됨. 수산물로는 과거 임금에게 진상했던 노성천 유역의 참게가 유명했으나 현재는 거의 멸종되었고, 논산(탐정)저수지를 중심으로 열대어 양식을 비롯한 내수면어업이 행해지고 있음. 축산업 가운데 양계업은 천연기념물인 약닭·오골계 사육을 중심으로 연산면에서 대규모로 행해지고, 양돈업은 쏜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농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음.

15) 제조업은 주로 군납을 위한 간장·된장·고추장 등의 농산물가 공업과 잎담배가 공업·도정업·양조업 등이 발달해 있으며, 약간의 섬유·기계·화학 공업도 행해짐.

16) 1952년 육군 제2훈련소가 들어선 이후 각종 서비스업이 발달 했으며, 시장은 정기공설시장 4개소, 일반사설시장 2개소, 백화점 1개소 등이 있음

5. 고려요소

- ▶ 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 이행목적 구현
- ▶ 이전부지의 확장성, 경제성, 적정성
- ▶ 이전 시 국방관련 시너지 효과 달성면
- ▶ 호국·국방 역사성
- ▶ 국가안보를 위한 장기간 고통 감내 보상차원
- ▶ 교육 및 정주여건
- ▶ 자연 환경면
- ▶ 역사·문화적 여건
- ▶ 접근성(교통 편리성)
- ▶ 생활 편의성
- ▶ 군부대 협력여건
- ▶ 국방산업 연구협력 여건
- ▶ 정부부처와의 협력 여건
- ▶ 육·해·공군부대와의 협력 여건
- ▶ 위기대응 용이성
- ▶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 외국군 공감대 확산효과 달성
- ▶ 논산시 국방, 방위산업관련 미래 발전 Vision

1) 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 이행목적 구현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시행 목적 부합여부 판단 필요
- 대전과 창원지역 미래 발전 여건 판단
-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동반 성장기여 가능 여부 판단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참여정부의 마중물 정책 중 하나였음.

(2) 따라서, 방위산업관련 기관 이전 시에는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3)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전, 창원지역은 이미 다수의 방위사업 관련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대도시 지역으로 집적화되어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미래발전을 위한 소재가 있는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소멸지역으로 발표한 금산, 논산, 부여, 청양, 서천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논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목적을 구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대덕연구단지 및 창원 산업단지)

2) 이전부지의 확장성, 경제성, 적정성

- (접근성) 논산 IC에서 약 15km, 서논산 IC에서 10km 이내 위치 수도권 및 전국에서 1~2시간 이내, 전국 군부대 및 산업현장 접근 가능
- (확장성) 전국 유일의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 국가산단 예정지가 약15km 이내 위치
- (경제성) 해당 부지는 2023년까지 시설물 철거 예정(국방부 소유)
- (적정성) 이전부지 면적이 1만평(3,500㎡)이상, 이전 시 최소 필요면적 충족

(1) 논산 IC에서 약 15km, 서논산 IC에서 10km 이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및 전국에서 1~2시간 이내, 전국 군부대 및 산업 현장과 접근이 가능하며

(2) 전국 유일의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국가산단업단지 예정지가 15km 이내 위치, 주변에 산단 7개소 포함 방위사업청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성장이 가능함.

(3) 해당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2023년까지 시설물 철거 예정이며, 토지 매입비용 절감을 통해 이전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4) 이전부지 면적이 1만평(3,500㎡) 이상으로 이전 시 최소 필요면적을 충족함.

3) 이전 시 국방관련 시너지 효과 달성면

- 현재 이전대상지역의 국방관련 정책, 교육, 연구, 체험 및 견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지역 결정 필요
-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국방관련 기관 추가 이전 비전 등 고려

(1)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방관련 역사, 정책, 교육, 연구, 체험 및 견학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평가하여함.

(2) 여기에 정부차원에서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각 경쟁지역 별로 유치 가능한 기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과 논산시는 국방안보특례시 조성 비전을 세우고 향후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임.

4) 호국·국방 역사성

- 계백장군 5천 결사대, 신라 김유신 5만 군대 결전지인 황산벌
- 1951년 11월 1일 육군훈련소 창설이후 900여만 명 신병 배출
 - ※ 현재 매년 12만 명 신병 배출, 면회객 년 130여만 명이 방문함
 - ※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 상암월드컵 경기장 67개 규모
- 2017년 국방 분야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 이전
- 1957년 창설한 육군항공 교육의 산실인 육군항공학교 위치
- 인근지역에 3군 본부(계룡) 및 육군부사관학교(익산) 위치
 - ※ 계룡시는 2003년 9월 18일까지는 논산지역에 속했음.

(1) 지금으로부터 660년 前 현재의 연산지역 황산벌 일대에서 백제 계백장군의 결사대 5,000명과 신라 50,000명의 군사가 대치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음. 계백장군은 전장터로 출전하기前 자신의 처와 자식까지 죽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출전하여 신라군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병력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으나 결국 패하고 말았음.

(2) 역사가들은 비록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황산벌은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호국 정신과 충절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장소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평가로 인해 계백장군의 호국정신과 충절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된바 있으며 논산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장소부근에 군사 박물관을 설립하고 계백장군 가묘를 조성하여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호국의 명소임.

(3) 또한 이곳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군은 이 전투의 승리로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는데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화랑도 정신이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미래 남북통일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황산벌 전투는 단순한 전투라기 보다는 빛나는 호국정신을 배우고 나라사랑과 국방의 소중함,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는 호국·국방의 대표적인 상징 지역이라 볼 수 있음.

(4) 1951년 11월 1일부로 논산지역에 세계 최대의 육군훈련소 (연무대)가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900만 명의 신병을 훈련시켜 배출하였음.

(5) 현재도 육군훈련소에서는 매년 12만 명의 신병들을 대상으로 훈련하여 배출(육군 신병양성의 47%)하고 있으며, 신병들을 면회하기 위해 연간 130여만 명이 논산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국방의 중심도시라 할 수 있음.

(6) 그리고 2013년 이전에 서울지역에 위치해 있던 우리군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가 2017년에 논산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국방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음. 국방대학은 군인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군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다수의 외국군들이 위탁교육을 받는 그야말로 국제적 성격의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 K-국방교육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음.

(7) 국방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보면 안전보장대학, 안보과정, 국방관리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직무교육과정도 운영하여 고도의 실무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있음. 즉 국방대학교는 국가안보를 선도 하는 세계 일류의 국방교육기관임.

(8) 이 외에도 주기적인 국내외 학술세미나(세계안보학대회, 국제 학술세미나, 안보포럼, 방문학자 및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등)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9) 여기에 1995년 8월 4일 이후 국제평화활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활동 메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을 운영,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10)또한 국방대학교 내에 2011년 12월 1일 설립된 합동대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발전시키기 위해 합동성 구현을 위한 군사 전략, 국방기획, 합동 및 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 등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11)논산시 노성면지역에 창설한 육군항공 교육의 산실인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하고 초급장교 교육은 물론 기종전환반, 계기비행반, 교관 및 시험비행단, 조종사 전문반, 준사관전문반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육군의 모든 항공조종사들과 정비요원들의 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음.

(12)인근지역인 계룡에 3군 본부와 익산에 육군부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우리군의 상징적 도시이면서 육군 부사관들의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 복무하는 군인들은 복무 및 교육기간에 수시로 논산지역에 위치한 부대를 방문하는 등 국방 분야 특성화 지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계룡대 3군본부)



(육군항공학교)

5) 국가안보를 위한 장기간 고통 감내 보상차원

- 육군훈련소 사격 소음
 - 육군 항공학교 헬기소음
 - 부대주변 재산권 행사 제한
 - 기타 육군훈련소 신병입소 및 면회객 방문에 따른 교통통제및 생활 불편 초래
- ※ 접경지역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고통 감내 고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차원 다각적인 지원정책 시행 중

(1) 1951년 육군훈련소 창설이후 72년간 신병훈련 간 주야 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감내해옴.

(2) 또 한 육군항공학교 창설이후 27년간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헬기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제한되고 상당한 가축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한 많은 손해를 감당해옴.

(3) 또한, 부대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 되는 것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토지 가격 인상 효과가 떨어지는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겪어 왔음.

(4) 여기에 매주 입소하는 입소 당일과 면회일에는 육군훈련소부근 일대에 대한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 등도 감내해오고 있음.

(5)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정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이에 상응한 보상대책 차원 국방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이전 요구 필요함.

참고적으로 북한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15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온 것과 최근 다수의 부대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전방 부대 중 다수부대가 해체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차원에서 심대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강력하게 접경지역 지원정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2011년 이후 제정(지속 개정)되어 시행중임.



(육군훈련소 사격연습)



(헬기 소음)



(접경지역 국방부 간담회)



(철원지역 민간인 피해 해결 촉구)

6) 지역정서

- 계룡시 시민의 47% 이상이 군 가족 및 예비역으로 구성
- 논산시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주변 다수의 군인가족 거주
- 지역주민들도 계룡과 논산시는 국방관련 특성화 도시라는 지역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가장 큰 역할을 국방 분야 발전이라는 점에 대부분이 공감

(1) 인근지역인 3군 본부가 소재한 계룡시의 경우에는 시민 중 47%이상이 군인가족 및 예비역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국방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친군정서가 매우 잘 조성 되어 있음.

(2) 논산시의 경우도 지역 내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다수의 부대 인근지역에 많은 군인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기 복무이후 다수의 예비역들이 새로운 정착지로 삼고 이주해오는 예비역들이 증가하는 등 역시 친군정서가 높은 지역임.

(3)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에 있어 국방 분야가 지역발전의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을 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

7) 자연 환경면

- 1968년 12월 31일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계룡산과 호남의 금강산이라는 대둔산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 3번째로 큰 하천인 금강이 인접해 있는 천혜의 청정 및 생태의 보고 지역
- 대둔산(878m) 줄기의 월봉산(650m), 바랑산(555m)등이 북동부에는 계룡산(845m) 줄기의 황적봉(664m), 관암산(826m), 향적산(574m) 등이 산지를 이루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와 넓은 평지를 이룸.

(1) 동북부에는 지리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계룡산(845m)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부에는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878m)가 위치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2) 계룡산(845m) 줄기의 황적봉(664m), 관암산(826m), 향적산(574m) 등이 산지를 이루며 대둔산(878m) 줄기의 월봉산(650m), 바랑산(555m) 등이 대체로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와 넓은 평지를 이룸.



(계룡산)



(대둔산)

8) 역사·문화적 여건

- 백제 역사의 왕도지역을 호위하는 핵심지역
- 삼국통일의 마지막 격전지인 황산벌 소재
- 한반도의 단전부에 위치한 국방한국의 핵심지역
- 신석기 시대의 백제, 고려,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유적의 보고
- 사계 김장생 선생 등을 배출한 조선예학의 산실
- 지역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돈암서원 소재 및 인근지역 공주 및 부여와 익산지역에 유네스코 세계역사문화유산 다수 소재
- 국가지정 다수의 문화재 보유
- 11경 5품의 관광 메카 도시

(1) 백제역사의 왕도인 부여, 공주를 호위하는 핵심 외곽지역으로 백제시대 계백장군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 5만 군사에 대항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 항전했던 황산벌이 위치하고 있음.

(2)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황산벌은 계백장군의 충절과 신라군의 화랑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호국충절의 대표적 장소이며, 신라군이 마지막 백제군의 방어선을 무너트리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통일 의미를 품고 있는 의미 있는 장소로 미래 남북통일의 소망을 열어가는 상징적 장소이기도 함.

(3)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한반도의 단전부에 위치한 국방한국의 핵심지역으로 우리군의 신병교육의 47%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훈련소와 국방분야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 육군 항공 교육의 산실인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국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국방도시임.

(4) 여기에 예부터 광활한 평야와 풍부한 용수 등으로 신석기시대와 백제, 고려, 조선 시대 등 많은 인구가 거주했던 곳으로 다양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음.

(5) 조선예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계 김장생 선생을 배출한 지역으로 유교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명성이 높으며 김장생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사용한 장소인 돈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문화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곳임.

(6) 인근지역인 공주, 부여, 익산지역에도 다수의 문화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논산, 부여, 공주일대는 전국과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함.

(7) 논산지역에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불상, 관촉사 석등, 쌍계사 대웅전, 성부도씨 종중문서, 남양전씨 종중문서, 윤증 초상일괄, 돈암서원 응도당, 노강서원 강당,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윤증가 유품, 명재고택 등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8) 언제 찾아도 행복한 논산,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논산 11경과 5품을 선정하였는데 11경은 관촉사 은진미륵, 탑정호와 출렁다리, 대둔산 수락계곡, 계백장군 유적지, 쌍계사, 개태사, 강경포구와 근대 역사거리, 노성산성과 명재고택, 세계유산 돈암서원, 선샤인랜드, 종학당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을 5품은 딸기, 젓갈, 고구마, 꽃감, 대추 등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먹거리임.



(황산벌 최후 전적지)



(돈암서원)



(관촉사 은진미륵)



(명재고택)

9) 접근성(교통 편리성)

- 호남고속도로(회덕~광주) 관통
- 천안·논산 고속도로 관통
- 호남선(서대전~목포) 관통(호남선 서대전~논산구간 직선화 추진)
- * KTX 이용 시 서울(2시간), 부산(3시간), 목포(2시간) 소요
-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점에서 23분소요
- 인천공항 이용 시(약 225km) 2시간 30분 소요
- 군산공항 이용 시(약 60km) 1시간 소요
- 광주공항 이용 시(약 80km) 1시간 30분 소요
- 청주공항 이용 시(약 45km) 1시간 소요
- 국도 1, 4, 23호선이 광역 중계도로 역할

(1)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발달된 교통망으로 전국 3시간대 생활권임.

(2) 인천공항, 군산공항, 청주공항 이용 시 50분~3시간 내 접근 가능하며 충청권 광역 철도망 개통 시 대전역에서 전철로 25분 내 도착 가능함.

(3) 2025년에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착공되어 완공되면 서대전에서 논산까지 13분정도 단축 예상됨.

(4) 논산시가지를 중심으로 대전, 광주, 부여, 익산 방향의 지방도가 사방으로 뻗어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 함.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논산역)

10) 생활 편의성

- 의료시설 : 백제종합병원,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 ※ 인근지역 : 충남대/건양대/을지대 병원, 충청병원, 국군통합병원, 계룡대 지구병원 등 소재
- 대형마트 : 연무대 행복마트, 계룡대/국방대 쇼핑센터 등
-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다수 운영 국방대(9홀), 계룡대(18홀), 자운대(9홀), 창공대(9홀), 국방대(9홀, 현재 공사 진행 중)
- 최첨단, 최신식 시설 구비한 논산 종합운동장 운영
- 대전 유성구에 월드컵 경기장 소대
- 계룡대, 국방대 내 다양한 운동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구비
-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종교시설 다수 운영
 - ※ 인근지역 : 계룡대 3군 본부교회, 천주교, 불교 시설

(1) 논산시내에 백제병원과 육군훈련소 내 군 지구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대전시내에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충청병원 등 4개의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음.

(2) 논산시내에 연무대 행복마트, 계룡대/국방대 쇼핑센터 등 군 관련 쇼핑센터와 민간 대형 쇼핑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유성에 계룡스파텔 등이 운영되고 있음.

(3)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시설은 계룡대(18홀), 자운대(9홀), 창공대(9홀)와 현재 공사 중인 국방대(9홀) 등이 있으며, 지역 내에 다수의 민간 골프장이 소재하고 있음.

(4) 논산시에는 최첨단, 최신식 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이 운영 되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대전 유성(50분 소요)에는 2002년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었던 월드컵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주요경기를 언제든지 관람 가능함.

(5) 또한,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과 인근지역인 계룡시에 3군 (육·해·공군)본부교회, 천주교, 불교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종교 활동 최적지임.



(논산 백제 종합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연무대 교회)



(논산 종합운동장)

11) 군부대 협력여건

(1) 전국 최고의 다수 군부대 밀집 지역

- (논 산)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 (계 룡)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출판지원단, 공군기상단 등
- (대 전)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종합군수학교, 군의학교, 간호사관학교, 정보통신학교, 육군지형분석단 등
- (세 종) 방공학교, 32사단
- (익 산) 육군부사관학교, 7공수여단
- (청주/증평) 공군사관학교, 37사단

(2) 논산시에는 세계최대 규모의 신병훈련소인 육군훈련소, 국방교육의 최고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 육군 항공 교육의 산실인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해 있고 인근지역인 계룡시에는 육·해·공군본부, 국방부 계룡대군무지원단, 국방출판지원단, 공군기상단 등이

(3) 대전에는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종합군수학교, 군의학교, 간호사관학교, 정보통신학교, 육군지형분석단 등 이 소재하고 있으며, 세종시에는 방공학교와 32사단사령부, 논산과 인접해 있는 여산 일대에는 육군부사관학교와 7공수여단이

(4) 청주에는 공군사관학교, 증평에 37사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논산시로부터 20~65분 내 거리에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등 다양한 부대가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조차 찾아보기 드문 전국 최고의 국방 특성화 지역으로 방위산업관련 다양한 군부대와 협력이 가능한 지역임.

(5) 특히, 육군, 해군, 공군을 지휘 통제하는 3군 본부에서는 각 군의 정책방향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획득 가능하며, 군육군수사령부에서는 방산무기와 장비, 물자에 대한 사용자 입장에서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임.



계룡대(육군, 해군, 공군본부)



(국방대학교)



(육군 부사관학교)



(육군 항공학교)

(6) 각종 훈련여건

- 계룡대(30분) : 육·해·공군 3군 본부 실무체험
-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5분) : 육군 신병훈련
- 육군항공학교(15분) : 육군 항공분야 교육·연구·훈련 협력
- 전북 여산 부사관학교(15분) : 육군 부사관 과정 훈련
- 경기 광주 특수전학교(130분) : 공수 훈련
-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70분) : 공군생도 교육
- 전남 장성 보병학교(70분) : 각종 병과 장교과정 훈련
- 강원 홍천 과학화 훈련장(180분) : 과학화 훈련

(7) 또한 다양한 부대에서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국방부차원에서 훈련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 확인이 수월하여 훈련 정책 발전시 충분히 야전부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군수사령부)



(특수전학교)



(KC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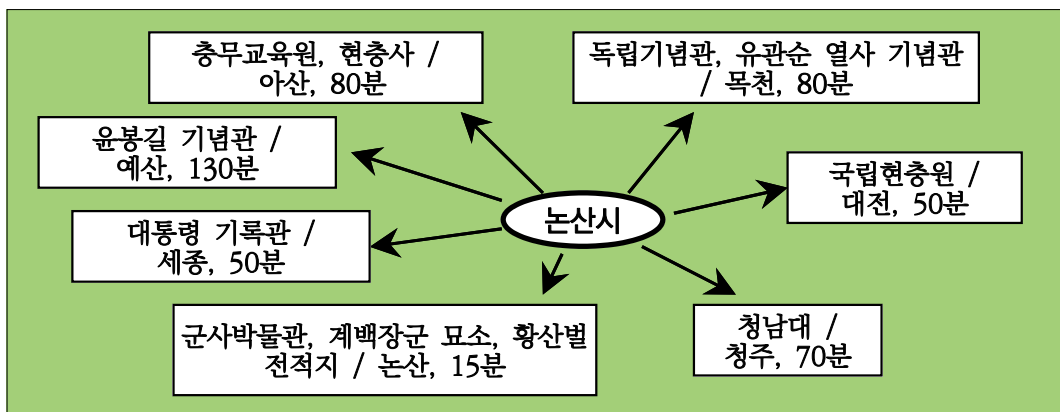
(8) 리더십, 인성 관련 교육장소

■ 논산시 주변 전시관 및 사적지

- 충무교육원(아산, 80분) : 충무공 이순신 장군 관련 교육협력
- 현충사(아산, 80분) : 호국정신, 나라사랑 리더십 함양
- 독립기념관(천안 목천, 80분) :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 견학/체험
- 국립현충원(대전 유성, 45분) : 나라사랑 보훈정신 함양
- 유관순 열사 기념관(천안 목천, 80분) : 독립운동 정신 함양
- 윤봉길 의사 기념관(예산, 130분) : 독립운동 정신 함양
- 청남대(충북 청주, 70분) : 역대 대통령 기념관

(9) 또한 국방분야 발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관, 리더십,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과 사적지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음.

(10) 예를들면 아산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관련 교육협력 가능한 충무교육원, 천안에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 견학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 그리고 충남지역 곳곳에 나라사랑, 보훈정신 배울 수 있는 국립현충원,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현충사, 독립운동 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 윤봉길의사 기념관,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청남대와 대통령기록관, 논산 군사박물관, 계백장군 묘소, 황산벌 전적지등이 위치해 있어 최적의 장소임.



〈그림-6〉리더십, 인성관련 교육장소

12) 국방산업 연구협력 여건

■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 : 2029년

- 전력지원체계 업종 유치

※ 무기체계 업체 중 무인시스템, 드론, 항공기 정비, 사이버교육장비 및 웨어러블플랫폼 참여 업체, 국방 M&S, 전력지원체계 기반 빅데이터센터 등

■ 인근지역 정부출연 및 국방관련 기관 다수 소재

- 대덕연구단지 : 약 1,700개 기관 입주

정부출연기관	국·공립기관	비영리기관	교육기관	일반기업
26개	24개	23개	7개	1,600여개

-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 방위사업청 산하연구기관

-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추진(국방클러스터)

- 대전 국방벤처센터 및 각 대학 국방관련연구소 등

■ 논산시내 인근지역 일반대학 국방관련 학과 다수 운영

구분	지역	관련학과	비고
건양대	논산	군사학과	육군 협약학과
충남대	대전	국방융합학부	
대전대	대전	군사학과	육군 협약학과
대전과학기술대	대전	군사학과	
대덕대	대전	군사학부	
우송정보대	대전	조리부사관학과	

- 각 대학 산학협력단과 유기적인 연구협력

(1) 전국 최초로 논산시 지역에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2029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됨. 이 산업단지는 전력지원체계 (비무기체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무기체계 업종 중 무인시스템, 드론, 항공기정비, 사이버 교육장비 및 워리어 플랫폼 참여 업체와 국방 M&S, 전력기반체계기반의 빅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방위사업청과 최적의 협력여건을 갖추게 됨.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 위치 : 충남 논산시 연무읍
- 면적 : 854,579㎡(26만평)
- 시행자 : LH
- ('20년) 기재부 예타 통과(BC1.42)
- ('24년) 착공 ('26~'27년) 입주



충남국방벤처센터 개소
(19.09.05.)



육군군수사 업무협약서 체결
(20.10.15.)



육군군수사 업무협력의향서 체결
(21.12.22.)

■ 그동안 추진현황

- ▶'16.12.05.: 국방부·국방대·충남도·충남도의회 상생협력 합의서 체결
- ▶'18.03.01.: 국방국가산업단 후보지 최종 선정 발표(국토부)
- ▶'19.09.05.: 충남 국방벤처센터 개소
- ▶'20.10.15.: **충남도-육군군수사령부-논산시 업무협약 체결**
 - 입주기업의 국방 부품국산화 사업참여 협력
- ▶'20.11.30.: 논산 국방국가산업단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재부)
- ▶'21.12.22.: **충남도-육군교육사령부-논산시 업무협력의향서 체결**
 - 전력지원체계, 인공지능, 드론봇, 빅데이터 등 국방산업 육성계획 발굴 협력

(2) 또한, 인근지역인 대전지역 대덕연구단지내에는 정부출연기관 26개, 국·공립기관 24개, 비영리기관 23개, 일반기업 약 1,600여개 등 총 1,700여개의 기관이 입주되어 있으며 이중에서도 방위사업청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위치해 있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국방벤처센터 및 각 대학의 국방관련 연구소 등 과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3) 여기에 논산, 대전지역은 일반대학에 국방관련학과(학부)등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전국 최고의 국방특성화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덕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등에 운영 중인 군 관련 학과 (학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단지)



(각 대학 국방관련학과)

13) 정부부처와의 협력 여건

- 세종 정부청사 : 16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상주
- 대전 정부청사 : 1부 7청 소속기관 상주
- 병역특례관련 협력 : 중앙병무청(대전정부청사 내)

(1) 인접지역인 세종과 대전지역에 대한민국 대표적인 정부청사 23개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이 상주하고 있어 국방관련 다양한 협조가 가능함.

(2) 또한 대전청사 내 중앙병무청이 위치하고 있어 방위산업체 병역특례기업 지정 등에 관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함.



(세종정부청사)



(대전정부청사)

14) 육·해·공군본부와의 협력 여건

- 계룡시 지역에 육·해·공군본부 소재
-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육군군수사령부 소재

(1) 인접지역인 계룡시에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하여 방위산업관련 무기 및 장비, 물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각 군정책방향 이해와 협력을 위한 최상의 여건임.

(2) 육군 군수사령부를 통하여 무기 및 장비, 물자 등에 대한 야존 의견 수렴과 제반 개선분야 도출이 용이함.

15) 위기대응 용이성

- 긴급 위기발생시 작전 수행 여건 최상
- 논산시내 소재한 각 급 부대와 위기 대응협력 가능

(1) 긴급 위기상황 발생 시 육·해·공군부대 및 논산과 계룡지역에 소재한 각 급 부대와 효율적인 위기대응 모델을 개발 하여 평시 지속적인 훈련과 위기상황 발생 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적절한 상황대처가 가능함.

16)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 외국군 공감대 확산효과 달성

- 육군훈련소 면회객 방위산업전시관 견학 기회 제공
- 계룡대 나라사랑 투어 프로그램에 방위사업청 견학 코스 반영
- 국방대학교 수탁교육 외국학생 및 계룡대 방문 외국 무관단 대상 방위사업청 견학기회 제공
- 논산, 계룡, 대전지역 군 관련 학과 학생들 견학 기회 제공

(1) 연간 육군훈련소 신병훈련을 하는 12여만 명과 면회차원 방문하는 130여만 명의 면회객들에게 부대방문 시 방위사업전시관과 호국문화체험단지 견학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방위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계룡대에서 육군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계룡대 나라사랑 투어 프로그램 견학 코스에 방위산업관련 전시관을 반영하도록 협조하고

(3) 국방대학교에 수탁교육 중인 외국군들에게 교육기간 중 방위산업관련 전시관 견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방대학교에 협조하고 업무차 또는 방문차 계룡대 또는 지역에 있는 부대를 방문하는 외국 무관단들에게도 견학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그리고 전국 및 논산시와 인근지역 대학에서 국방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 목적상 가능한 방위산업관련 전시관을 견학할 기회를 주도록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육군훈련소 훈련병면회)



(국방대학교 외국군 교육생)



(계룡군문화축제)



(육군훈련소 견학/체험행사)

17) 논산시 국방, 방위산업관련 미래 발전 Vision

- 국가국방산업단지 조성 완료 : 2029년
- 전국 최고의 국방안보특례도시 조성 추진

(1) 대한민국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2029년 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여 세계적인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

(2)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방위사업청 유치를 계기로 논산시췌 지역을 미국의 헛츠 빌(Huntsville)과 같은 세계적인 방위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국방안보 특례도시』로 발전시켜



- 위치 : 미국 앨라배마주 헨즈빌
 - 면적 : 554.9km²(논산과 동일)
 - 특징 : 세계적 군사, 방산중심도시
- * 일류 최초 달 탐사선(아폴로 11호)
로켓트 개발

(3)“K-국방”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전국 최초의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조감도)

제8장 국방관련 유치 성공사례

국방대학교(논산시)

1. 개관

- 이전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4항)
- 이전위치 :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
- 대지면적 : 697.207㎡(21.1만평)
- 사업비 : 3,502억원
- 이전인원 : 3,375명(학생 1,060, 교직원 490, 가족 1,825)
- 학교시설 : 학교본부, 안보문제연구소, 안보대학원 등 12개 시설 65동
- 주거시설 : 1,061호(관사 3, 아파트 466, 독신숙소 592)



2. 추진과정

- ▷ 2005.6.24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국방대를 충남으로 개별이전 고시)
- ▷ 2005.10.17 : 국방대 논산유치 청원서 제출
(논산시 변영회연합회→국가균형발전위원장)
- ▷ 2006.9.18 : 국방대 논산유치 결의대회
- ▷ 2007.5.29 : 충남 시·군 의회회장단 국방대 유치 결의문 채택
- ▷ 2007.11.21 : 충남 시장, 군수 논산유치 건의문 청와대 제출
- ▷ 2007.12.11 :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
(제 2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2009.3.30 : 국방대 논산이전 촉구 상경집회
(국방대 정문 앞 1,000여명)
- ▷ 2009.3.30 : 국방대 이전 촉구 서명서(24,000명) 국방장관 전달
- ▷ 2009.5.11 : 국방부 정문 및 서문 농성시작(단식투쟁)
- ▷ 2009.5.21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 1인 시위 시작
(3개월, 350명 참석)
- ▷ 2009.6.17 : 국방부 논산이전 합의서 체결
(국방부차관, 국방대총장, 충남지사, 논산시장)
- ▷ 2010.1.21 : 국방대 지방이전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5,664억원, 34만 평)
- ▷ 2014.11.24 : 국방대 논산이전 기공식 개최
- ▷ 2017.7.20 : 국방대 건축공사 준공
- ▷ 2017.8.11 : 국방대 개소식
- ▷ 2017.9.26 : 국방대 논산이전 기념행사



(국방대학교 충남이전 개소 : 2017.8.11)

3. 국방대학교 유치 성공 시사점

- 지도부(충청남도, 논산시)의 강력한 유치 의지 표명
 - 유치 TF(5개반 25명) 조직적 활동 및 유치전략 수립
 - 다양한 시민지원 조직 결성
 - 국방대학교 앞 1,000명 상경 시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 1인 시위(3개월, 350명)
 - 논산시민 유치기원 서명운동(25,000명)
 - 충청남도, 논산시 시장, 군수 결의문 채택 (국방부장관에게 전달)
 - 충청남도, 논산시 시, 군의회 의장단 결의문 채택
 - 국방대학교 충남 유치 시민 결의대회
 - 이전관련 동향 지속적 파악 및 적시 대응
 - 조직적, 지속적인 언론 홍보 : 기간 중 1,572회
- ※ 국방대학교 유치활동 10년 만에 유치 성공

(1) 국방대학교 유치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거 국방대학교를 충남지역으로 개별 이전한다고 고시 된 이후로부터 2017년 8월 11일 개소식이 있을 때 까지 무려 10여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음.

(2) 국방대학교 유치는 소멸위기에 처한 논산을 살리기 위해 전 시민이 사활을 걸고 내일 같이 동참하여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3) 국방대학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그 중에서도 방위산업관련 기관 유치 활동 시 참고할 만한 활동을 정리해 보면, 지도부(충청남도, 논산시)의 강력한 유치 의지 표명, 유치TF (5개반 25명) 조직적 활동 및 유치전략 수립, 다양한 시민지원 조직 결성, 국방대학교 앞 1,000명 상경 시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1인 시위(3개월, 350명), 논산시민 유치기원 서명운동(25,000명), 충청남도·논산시 시장·군수 결의문채택 (국방부장관에게 전달), 충청남도·논산시 시, 군의회의장단 결의문 채택, 국방대학교 논산 유치 시민 결의대회, 이전관련 동향 지속적 파악 및 적시 대응, 조직적, 지속적인 언론 홍보(기간 중 1,572여회) 등을 들 수 있음.

(4)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국방대학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지역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인접지역의 3군 본부가 위치해 있다는 지역적 특징과 타지자체에 비해 쏠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치 노력에 동참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이전관계기관들은 감동시킬 수 있는 눈물겨운 유치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치에 성공하였던 점을 교훈 삼아 유치 당위성에서 제시했듯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와 각종 방위산업관련 기관이 이전 시에 단순히 무기, 장비, 물자의 생산뿐만 아니라 국방역사, 교육, 연구, 국방분야 미래 발전 비전 등과 연계 발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이전지역을 재판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쏠 시민들이 국방대학교 유치 시 보여 주었던 모습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5) 방위산업관련 기관의 유치는 단순히 국방과 관련한 기관을 유치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향후 논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방안보 특례시 조성해 나가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며 세계 최고의 국방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국방대 이전 추진상황보고회)



(국방대 이전 합의서 체결)



(이전관련 합의서 체결식)



(국방대 논산시대 개막식)

학생중앙군사학교(괴산군)

1. 유치대상 기관 : 학생중앙군사학교외 2개 기관

2. 유치 건의문

대한민국의 국가안위를 책임지는 젊은 국가간성들이 양성될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군사학교 선정은 국가 100년 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으로, 아름다운 산과 깨끗한 강이 조화를 이룬, 산자수려한 고장, 소위 “명당”이라는 비범하고 상서로운 고장 충북 괴산군으로 유치되기를 4만여 괴산군민들은 한결 같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3. 괴산군 일반현황

- 1) 면 적 : 842km²
- 2) 인 구 : 34,916명
- 3) 재정규모 : 1,996억원(2006년도)
- 4) 기업체 : 농공단지 2개소, 기업체 171개소

4. 지역여건

1) 국토지리적 여건

-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국지구과학회 '05 서울대학교 추계발표)
- 수도권 행정중심복합도시권, 충남권, 경북권, 강원권이 반경 60km 안에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2시간 이내 진입 가능

2) 주요 교통여건

- 중부내륙 고속도로 괴산 IC에서 10분

- 중부고속도로 증평 IC에서 20분
- 청주공항과 충북선에서 각 20분
 - ※ 증평역, 도안역, 보천역, 음성역, 충주역 각 10~20분 거리 인접
- 당진~울진 간 동서 5축 고속도로 설계 중
- 국도 34호선, 3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중(일부구간 완공)

3)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 수도권 1시간 10분, 청주권 30분, 충주권 20분
-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40분
- 진천·음성 혁신도시 및 진천 국가대표 2선수촌 20분

4) 자연환경적 여건

- 청정성과 안전성, 다양성과 순수성은 최적의 입지조건 형성
- 내륙 고지대로써 풍수해 등 재해없는 청정지역
- 화양동 구곡, 쌍곡구곡 등 속리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 조령삼관문, 문강온천, 수안보온천 인접(10분)

5) 문화관광·체육환경적 여건

-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사당인 충민사 위치
- 성리학의 대가 우암 송시열 선생 유적 분포(화양동 일대)
- 동몽선습의 저자 박세무 선행 고향
- 맑고 깨끗한 달천강과 불교를 대표하는 성불산, 단군을 상징하는 박달산, 도교를 상징하는 도덕산, 유교의 명덕산 등 명산 위치
- 괴강관광지, 수옥정관광지
- 최첨단, 최신식 시설을 갖춘 괴산종합운동장 완공
- 제 4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06.10.31~11.2)
- 세계적 규모의 양궁장(김형택 양궁장) 설치
- 매년 10여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6) 교육훈련시설 환경 여건

- 우리군은 공장이 적고, 오염원 발생이 최소화된 청정지역
- 수질과 대기질의 청정성 유지
- 군사교육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소음영향 최소화
- 외부와의 시각적 차단과 유탄소음의 방음기능 수행

7) 긴급유사시 작전수행여건 최적

-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유사시 신속한 작전수행과 능동적인 대처용이
- 유사시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으로 소산대책 용이

8) 생활환경 여건

- 교육시설 :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2개,
대학교 : 청주, 충주 등 인근에 8개 종합대학교
- 의료시설 : 괴산 삼성병원, 청주, 충주 인근에 9개 종합병원
- 주거시설 : 괴산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310세대) : 2008년 입주
- ※ 하천변 전원주택 부지 다량 보유(second house 개념 접근)
- 대형마트 : 괴산읍(대형마트 4개소, 재래시장 1개소) 청주, 충주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쇼핑센터 다수 입점(5일장 상시운영 : 3일, 8일)

5. 후보지 현황

- 1) 위치 : 괴산읍 사창리, 신기리 일대
- 2) 규모 : 210만평

범 례		
구 분	면적(만평)	비 고
총면적	404	
A지구	53	감물 오성(국군체육부대)
B지구	51	괴산 검승(국군체육부대)
C지구	300	괴산 신기·사창·능촌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군사학교)



6. 유치 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 1) 골프장 조성 부지 알선(50만평)
- 2) 읍소재지 인근 아파트 부지 알선(400세대)
- 3) 관내 거주 직원가족에 대한 아파트 최우선 공급(310세대, '08 입주)
- 4)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장기 저리 융자

- 5) 서울역, 용산역 ~ 육군종합행정학교 셔틀버스 상시 운행(주 3회)
- 6) 직원자녀 장학금 및 기숙사 제공(연 3억 원)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입학 시 전 학년 장학금 지원
 - 군인가족 자녀에 대하여 20% 별도 특별우대
 - ※ 과산 군민장학회에서 매년 3억 원 지원 중 : 지원내역
 - ※ 농어촌 특별전형에 의거 명문대 합격률 높일 수 있음
- 7)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 ※ 전국 최초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중('06. 9월부터)
 - ⇒ '07년도 중·고등학교 확대 실시
- 8) 자녀를 위한 스쿨버스 운행
- 9) 사업수행 전 과정 전폭적으로 지원
- 10) 이전에 따른 지원기획단 구성 운영 및 공동이용 사무실 설치
- 11)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Non-stop, One-stop 처리
- 12)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무상 제공
- 13) 진입도로 개설, 광역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확충



7. 건 의

1)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젊은 국가 간성들이 양성될 곳은 평범한 곳이 아닌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룬 비범한 지역인 괴산군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2) 육군종합행정학교와 함께 학생군사학교, 국군체육부대가 괴산군에 유치되어 젊은 국가 간성을 양성하는 새로운 요람으로 부상하여 국가 100년 대계에 기여할 수 있도 괴산군 이 전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3) 유치를 위한 활동 : 조직적 유치활동 전개

(1) 범시민유치위원회 조직

- 위원장 : 임각수 군수
- 부위원장 : 이재화 부군수
- 위원 : 김대식 괴산문화원장
- 위원 : 윤태선 농협중앙회군지장
- 위원 : 최태환 보훈회장
- 위원 : 김근수 향토사연구회장
- 위원 : 안병을 민주평통군협의회회장
- 위원 : 양춘호 괴산군새마을회장
- 위원 : 서창원 JC회장
- 위원 : 최은묵 학교운영위원회괴산, 증평협의회장
- 위원 : 김춘수 새마을문고회장
- 위원 : 이규순 농협인단체협의회장
- 위원 : 송규창 괴산, 증평삼림조합장
- 위원 : 장재영 경우회군지회장
- 위원 : 조확태 지방행정동우회 괴산지회장
- 위원 : 홍종원 괴산군의정회장
- 위원 : 정 현 괴산, 증평축협조합장
- 위원 : 김종진 군우리회장

- (2)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군사학교 유치 신청(공문)
 - 육군본부 : '06. 11. 1
 -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군사학교 : '06. 11. 8
- (3) 후보지 현지실사
 - 육군종합행정학교 : '06. 11. 2(9명)
 - 학생군사학교 : '06. 11. 8(2명)
- (4) 육군본부 방문 : 2회('06. 11. 10/11. 24)
- (5)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군사학교, 국군체육부대 패키지
유치신청(국방부) : '06. 11. 16
- (6)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군사학교 방문 : '06. 11. 27
- (7) 송파지역 학교기관 이전 시 지자체의「軍 지원사항」제안서 제출 협조공문
접수 : '06. 11. 28
- (8) 국회방문 : 2회('06. 11. 9/12. 1)
- (9) 軍 지원사항 제안서 육군본부 제출 : 12. 11일 한
- (10) 학교 자체후보지 순위 결정 후 육군본부 경유 국방부 신청 : '06. 12월
- (11) 국방부 최종 결정 : '06. 12월
- (12) 유치 시까지 정치권 및 충청북도, 사회단체, 군민, 출향인사 총 동원 괴산군
유치 총력 추진

4) 타지자체 유치신청 파악 : 안성, 천안, 괴산, 영주, 논산

- (1) 안성, 천안 ⇨ 지방 자치단체장 유치의지 미흡
- (2) 괴산, 영주, 논산 ⇨ 학교기관 이전 시 지자체의「軍 지원사항」
제안서 제출공문 발송(12. 11일한 육군본부 제출)
- (3) 이전확정 범국민환영대회(2007. 4. 25/전 군민 4,500명)
- (4) 협조서신 발송 : 국방부장관, 국방위원 등 10회
- (5) 이전확정(충북 괴산군 신기, 사창, 능춘 일원)
- (6) 감사서한문 발송 : 청와대, 국방부, 육군본부, 국무총리실, 학생군사학교,

국회(국방위원), 신기/사창/능촌 주요인사, 대책위원, 재경괴산동문회

(7) 이전확정 현수막 설치 : 읍·면 3개 이상, 유관기관 단체 1개 이상

5) 유치결과 : 유치 신청 3개 기관(학생군사학교, 육군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중
학생군사학교 유치성공

6) 유치이후 활동

(1) 감사서신 발송

국방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육군본부, 학생군사학교, 국회(국방)위원, 실무(대책)
위원, 신기/사창/능촌리 주요인사, 재경괴산동문회

(2) 범군민환영대회

- 일 시 : 2007. 5월 초
- 장 소 : 문화체육센터앞 미니 축구장
- 참 석 : 전 군민/4,500명
- 행사내용
 - ① 식전행사(37사단 군악대 연출, 농악놀이) ② 개회 ③ 국민의례
 - ④ 경과보고(실무대책위원회) ⑤ 대회사(이재화 위원장)
 - ⑥ 환영사(군수) ⑦ 축사(지역국회의원)
 - ⑧ 축사(내빈) ⑨ 축전소개
 - ⑩ 만세삼창(실무대책위원회) ⑪ 폐회
 - ⑫ 가두행진

(3) 환영 현수막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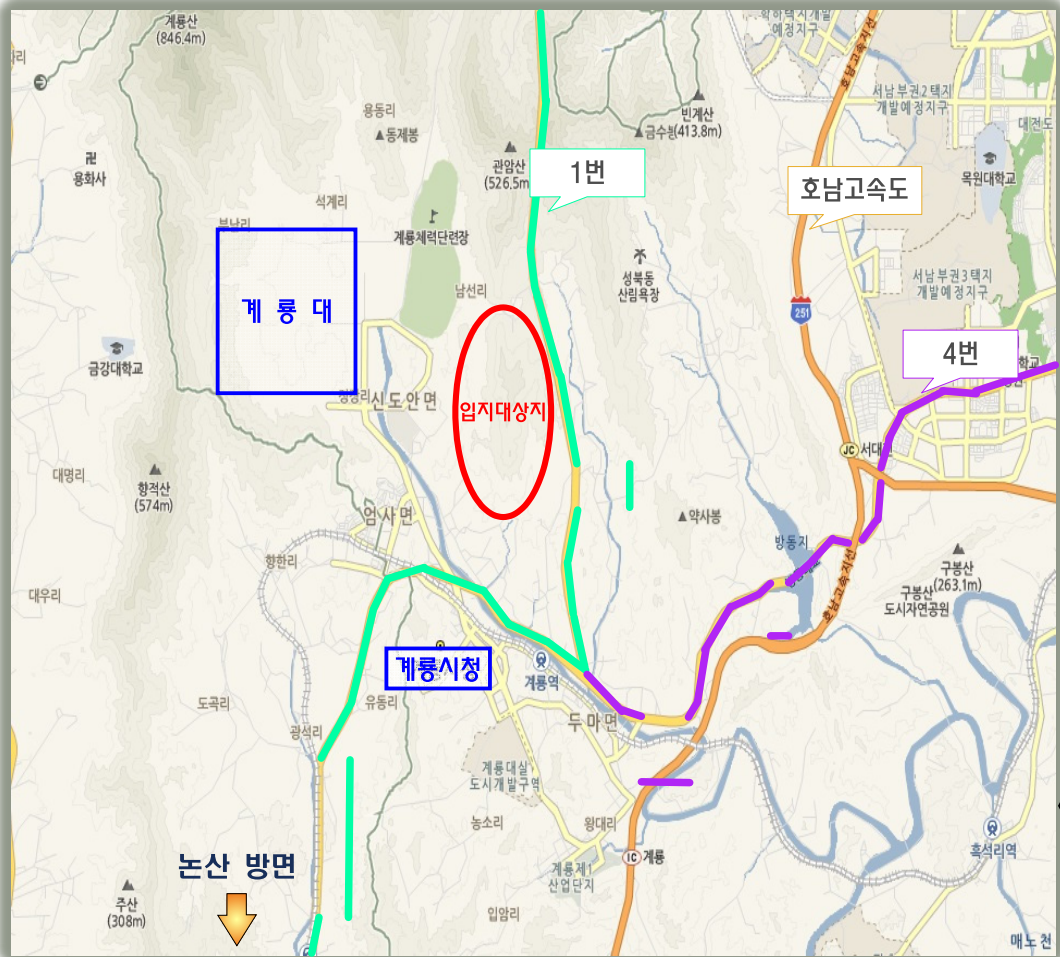
- 괴산군 발전의 희망 학생군사학교(文武臺)
- 학생군사학교(文武臺) 유치 우리 힘으로 해냈습니다
- 괴산군은 학생군사학교(文武臺)와 성장합니다
- 학생군사학교(文武臺) 유치 괴산군 발전의 시작입니다
- 새롭게 도약하는 괴산! 함께하는 학생군사학교(文武臺)
- 학생군사학교(文武臺) 유치 성공! 군민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 학생군사학교(文武臺) 괴산군민의 희망의 빛입니다.
- 학생군사학교(文武臺) 4만 군민 모두가 환영합니다.
- 학생군사학교(文武臺) 괴산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 학생군사학교(文武臺) 유치 확정! 괴산군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 대한민국의 간성의 요람 학생군사학교(文武臺) 이전 확정
- 괴산군민은 학생군사학교(文武臺) 이전을 적극 환영합니다.
- 학생군사학교(文武臺)! 괴산군 번영의 주역!
- 학생군사학교(文武臺) 괴산군 이전 결정 국토의 중심지 괴산에서 새로운 힘찬 출발
- 군민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괴산군 발전의 새로운 원년입니다.

[유치 후 활동 평가]

- 유치신청 3개 기관 중 최종적으로 학생군사학교 유치 성공
- 유치 성공이후 쏙 군민 차원 환영행사 개최
- 관련기관 및 유치 관계관 감사서신 발송 및 격려활동
- 학생군사학교 유치를 계기로 괴산군 새로운 도약 결의

2. (제2안) : 남선리(南仙里) 일원

- 위 치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일원
- * 동쪽 : 남선면 정장리, 서쪽 : 대전 유성 세동, 남쪽 : 대전유성 송정동,
북쪽 : 남선면 용동리
- 면 적 : 약 2.0km²(약 60만평)
- 토지가격 :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



〈그림-8〉국방부 이전 예정지(제2안 지역)

논산시 이전지역(안)

- 위 치 : 상월면 대명리 205-107번지 일원
- 면 적 : 100만평
- 특 징 : 계룡산 인근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계룡대 3군본부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관련 최적의 요충지이며 확장 가능성도 좋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보임



〈그림-9〉논산 국방부 이전 예정지

제10장 유치전략

- 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개발 제시
- 이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 국방부 구성원 및 가족들의 요구사항 해결방안 강구
- 충청남도, 계룡·논산시 지자체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
- 충청남도, 계룡·논산시 지자체장/의회 결의문 채택 전달
 - * 대통령실, 국방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 유치경쟁도시와의 차별화된 전략 : 획기적인 지원정책 제시 등
- 계룡·논산시 국방모범/특례도시 발전 비전 구체화 제시
- 유치위원회 조직적·체계적인 활동
- 지역 예비역(육·해·공군) 유치지원위원회 조직 및 활동
- 계룡·논산시 쏠 공무원 참여 캠페인
- 충청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 충청남도, 계룡·논산시 시민 유치 결의대회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미래 발전 비전 제시
- 계룡·논산시민 공감대 확산 노력 : 공청회, 순회 설명회, 평생교육 과정에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
- 계룡·논산시 쏠 지역 유치 기원 현수막 부착
- 국방부 앞 릴레이 집회 : 지자체장 1인 시위, 시민 릴레이 시위 등
- 각종 매체 지속적 홍보
- 국회세미나 개최
- 프레스센터 기자 및 언론인 초청 회견
- 전국단위 국민 설문조사 실시
- 외국과의 군사외교 활성화 도모 가능
- 사격, 헬기소음으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국가차원 보상 요구
- 각종 안보단체 및 기관 방문 협조

1. 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개발 제시

- △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에 취약
- △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기술의 발전
- △ 도시밀집 지역으로 전시 원활한 작전임무 수행 제한
- △ 작전상 후퇴상황에서의 긴급대처 제한
- △ 3군본부와의 유기적인 지휘체제 유지

국방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방부에서 이전한다는 정책적 결정이 우선되어야 함. 국방부는 다수의 정부기관과 같은 하나의 공공기관이라기 보다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이전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이전측면에서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는 과거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기술의 발전, 서울의과도 밀집현상, 전시 작전상 국방부를 옮겨야 할 경우 안정성 확보 등 고려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할 정책적으로 이전이 결정 되더라도 서울지역에 정착한 구성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손쉽게 이전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함.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제시한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2. 이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국방부 이전 시 가장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

- △ 국가통수권자와의 연락체계 유지
- △ 합동참모본부와의 지휘체계 유지
- △ 국방부 구성원들의 이전 반대
- △ 북한 공격 시 적시적 대처

국방부 이전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 국가 통수권자와의 연락체계 유지와 △ 합동참모본부와의 지휘체계 유지 문제는 통신기술 발전으로 전국 어디서나 화상시스템 또는 각종 첨단 통신수단을 활용하면 원활한 통신유지 및 지휘체제 유지가 가능하며, △ 국방부 구성원들의 이전 반대문제는 구성원들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점과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족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불편을 감내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무엇 보다도 서울 현 위치는 △ 북한 공격 시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제한되어 국방부 시설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속해있는 가족들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토록 하여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국방부 구성원과 가족들의 요구사항 해결방안 강구

1)이전시 이전 대상기관과 구성원 및 가족들은 아래와 같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 현재 용산 지역 국방부부지보다 넓은 부지
- △ 쾌적한 정주여건
- △ 생활편리 및 문화여건
- △ 자녀 교육여건
- △ 각종 혜택과 지원

2)따라서, 계룡과 논산지역의 특성과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 이전 대상 기관과 구성원 및 가족들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충청남도, 계룡·논산시 지자체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

국방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나 그중에서도 충남도지사와 계룡 및 논산시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가 가장 중요함. 강력한 유치 의지가 있어야 도민과 시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고 다양한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자체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가 유치 성공에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함.



(김태흠 충남도지사)



(백성현 논산시장)

5. 충청남도, 계룡·논산시 지자체장/의회 결의문 채택 전달

충남도시사와 유치를 바라는 계룡과 논산시장을 포함하여 충남도 17개 시장과 군수들이 연합하여 국방부를 충남지역에 위치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한자리에 결의를 다지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대통령실, 국회,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강력한 유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여러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펼칠 때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회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을 전달하는 것은 대부분 실시해온 방법으로 유치의지를 표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함.

6. 유치경쟁도시와의 차별화된 전략 : 획기적인 지원정책 제시 등

이전 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고 결정의 되게 되면 가능하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원조건을 비교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타 유치 경쟁도시 보다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전 대상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가능 하면 요구사항을 충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7. 인접시군(금산, 부여, 서천 등)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방안 제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 따라서 자신의 지역 발전만을 꾀하는 것보다는 인근지역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이를 위해 사전에 인근지역과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임.

8. 유치위원회 조직적·체계적인 활동

조직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함. 국방대학교 유치과정에서 시민유치위원회를 비롯하여 7개의 자발적인 시민 중심의 위원회가 유치 성공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충청도와 대전시가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청도와 대전 시범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내실 있게 활동을 펼친 사례 등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음.



(육군사관학교 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계룡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9. 지역 예비역(육·해·공군) 유치지원위원회 조직 및 활동

계룡과 논산시에는 다수의 과거 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고급장교들이 전역 이후 다수 거주하고 있음. 따라서 도청과 해당시 직원, 의회 위원 등과 별도로 육·해·공군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유치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경북 칠곡군이 대구지역 다수의 부대(육군 2작 전사령부, 제50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캠프 워커, 캠프 헨리, 캠프 조지 등)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예비역들이 참여하여 대구시장과 국방부장관을 향하여 경례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하는 모습은 매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봄.

10. 계룡·논산시 쏠 공무원 참여 캠페인

국방부 유치를 희망하는 계룡시와 논산시는 유치 성공을 위해 지자체별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게 될 것임. 유치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지자체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이를 뒷받침 하는 각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유치를 위해 고민하고 지자체장을 지원하는가 유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 따라서 지자체각 부서는 유치활동 시 필요한 지원분야가 무엇인지 도출하고 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유치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11. 충청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충남도민과 논산시민들의 국방부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민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서명 자료를 정부, 국회, 국방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전달 할 필요가 있음. 성공적인 사례는 지난 해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충남도민 100여만 명이 적극적으로 서명 운동에 참가하여 추가지정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례를 보면 이러한 충남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희망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를 충남지역으로 유치하기위해서도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는 것이 좋겠음.



(충남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운동 서명명부 전달)

12. 계룡·논산시민 유치 결의대회

국방부 유치가 지자체 일방적인 바람이 아니라 지역주민 대부분이 유치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각 해당 지자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유치 열망을 강력하게 대외에 보여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음. 이러한 결의 대회를 계기로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유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임.



(논산 국방협력위원회 결의)



(공공기관 유치 창립총회)

13. 논산시의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계룡시의 국방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비전 제시

논산시의 경우에는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비무기체제 중심의 산업단지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리군의 모든 전력지원체계의 산실이 될 계획임. 계룡시도 전국 최고의 국방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여 국방부가 이전 시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임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 논산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국방안보특례도시 육성과 계룡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평화상징도시 비전에 대해서도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방부 이전 시 더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줄 필요가 있음.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계룡 산업단지 조성)

14. 계룡·논산시민 공감대 확산 노력 : 공청회, 순회 설명회,

평생교육과정에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 국방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방대학교 유치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계룡시와 논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정에 국방 부이전 시 계룡과 논산시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발전 전망에 대해 공청회, 순회설명회, 평생교육과정에

관련 주제반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15. 계룡·논산시 쏘 지역 유치 기원 현수막 부착

계룡시와 논산시 쏘 지역에 국방부 유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계룡시와 논산시 주민들이 얼마나 유치를 바라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필요시 대통령실, 국방부, 계룡대, 세종정부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도 현수막 부착 필요함.



(논산시 방사청 유치 현수막)



(논산시 방사청 유치 현수막)

16. 국방부 앞 릴레이 집회 : 지자체장 1인 시위, 시민 릴레이 시위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국회,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지자체장 1인 시위, 시민 릴레이 시위를 열어 강한 유치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국방대학교 유치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3개월 간 350여 명이 참가하여 릴레이 형태로 시위를 실시하고, 1,000명이 동시에 버스를 타고 올라가 국방대학교 유치에 큰 역할을 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공주 공공기관 유치 시위)

17. 각종 매체 지속적 홍보

또한 지역 내 전문가로 하여금 국방부 유치와 관련한 주제로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쏙 국민들이 계룡시와 논산시가 국방부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18. 국회세미나 개최

국회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가능하면 국회에서 유치 타당성과 유치이후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강력한 유치 의지 표명은 물론 유치 시에 정부에서 바라는대로 지역 균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이 방법은 비록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요 사안에 대해 국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함.



(국회세미나)



(국회토론회)

19. 프레스센터 기자 및 언론인 회견(기자단 및 언론인 초청)

기자단과 언론인들은 어떤 이슈를 홍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가능하면 가장 많은 기자들과 언론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가지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 여기에 참석한 기자들과 언론인들은 매스컴별로 회견 내용을 가능한 객관적 시각에서 신속하고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20. 전국단위 국민 설문조사 실시

가능하다면 지역주민 중심의 설문조사와 함께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방부의 계룡 및 논산지역 이전에 대한국민적 관심도를 알아보는 노력도 매우 중요함. 충남도청에서 2022년 9월 23~24일 리얼리티 조사에서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오차 범위 $\pm 3.1\%$, 신뢰 수준 95%)를 보면 육군사관학교 계룡-논산이전 찬성 47.7%, 반대 37.1%로 나타났으며, 이중 충청권이 65.5%, 대구와 경북권이 65.7%로 나타났으며 이전 시 지방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응답이 55.7%,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4.6%로 나타나 전국의 다수 국민들은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긍 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방부의 경우는 국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은 기관으로 본 사례와 같이 전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신뢰 있는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함.

21. 외국과의 군사외교 활성화 도모 가능

3군 본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외국군 무관단, 국방대학교에 교육중인 외국군 학생, 그리고 국방부가 이전해 올 경우 국방부를 방문하는 외국군 등과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활동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방대학교에는 매년 평균 20여개 국가에서 교육을 받기위해 머물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 고위급 장교들로 교육 수료 후 귀국하면 승진을 거듭하여 해당국의 고위급 장성으로 진출하게 되어 차후 국방 및 방산외교의 주역들이 된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국방대 외국군 학생)



(국방대 외국군 간담회)

22. 사격, 헬기소음으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국가차원 보상 요구

논산시는 1951년 육군훈련소 창설이후 72년간 사격소음, 21년간 육군항공학교에서 발생하는 헬기 소음 피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편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음.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함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논산 시민들에게도 보상차원으로 국방부 이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육군훈련소 사격소음)



(육군항공학교 헬기소음)

23. 각종 안보단체 및 기관 방문 협조

국가안보에 관심이 많은 각종 안보단체(성우회, 시관학교 동문, 전우회, 예비역 협회 등)를 방문하여 국방부의 계룡시 또는 논산시 이전 타당성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을 협조하여 외부의 힘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방부는 여러 공공기관 중 하나라기 보다는 국가안보의 상징적 기관임을 감안하면 국방부가 이전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보단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 행사)



(육사 동문회 모임)

제11장 관심 유도를 위한 기획행사

- 국방부 유치를 위한 충청남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출범식
- 계룡·논산시 거주 예비역 유치지원위원회 조직
- 충청남도민 100만 명 유치 기원 서명운동 전개
-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유치결의문 채택 및 전달
- 충청남도 의장단 유치결의문 채택 및 전달
- 충청남도 남부권(계룡, 금산, 논산, 부여 등) 공동유치위원회 출범

1. 국방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쳐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쏙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창의적인 기획행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충청남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출범식, 계룡·논산시 거주 예비역 유치지원위원회 조직, 충청남도민 100만 명 유치 기원 서명운동 전개, 충청남도 시장·군수연합회 결의문 채택 및 전달, 충청남도 의회 의장단 결의문 채택 및 전달 등을 통해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출할 필요가 있음.

3. 국방부가 계룡 또는 논산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유치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금산, 논산, 부여와 계룡 등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지역이 함께 하여 공동유치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은 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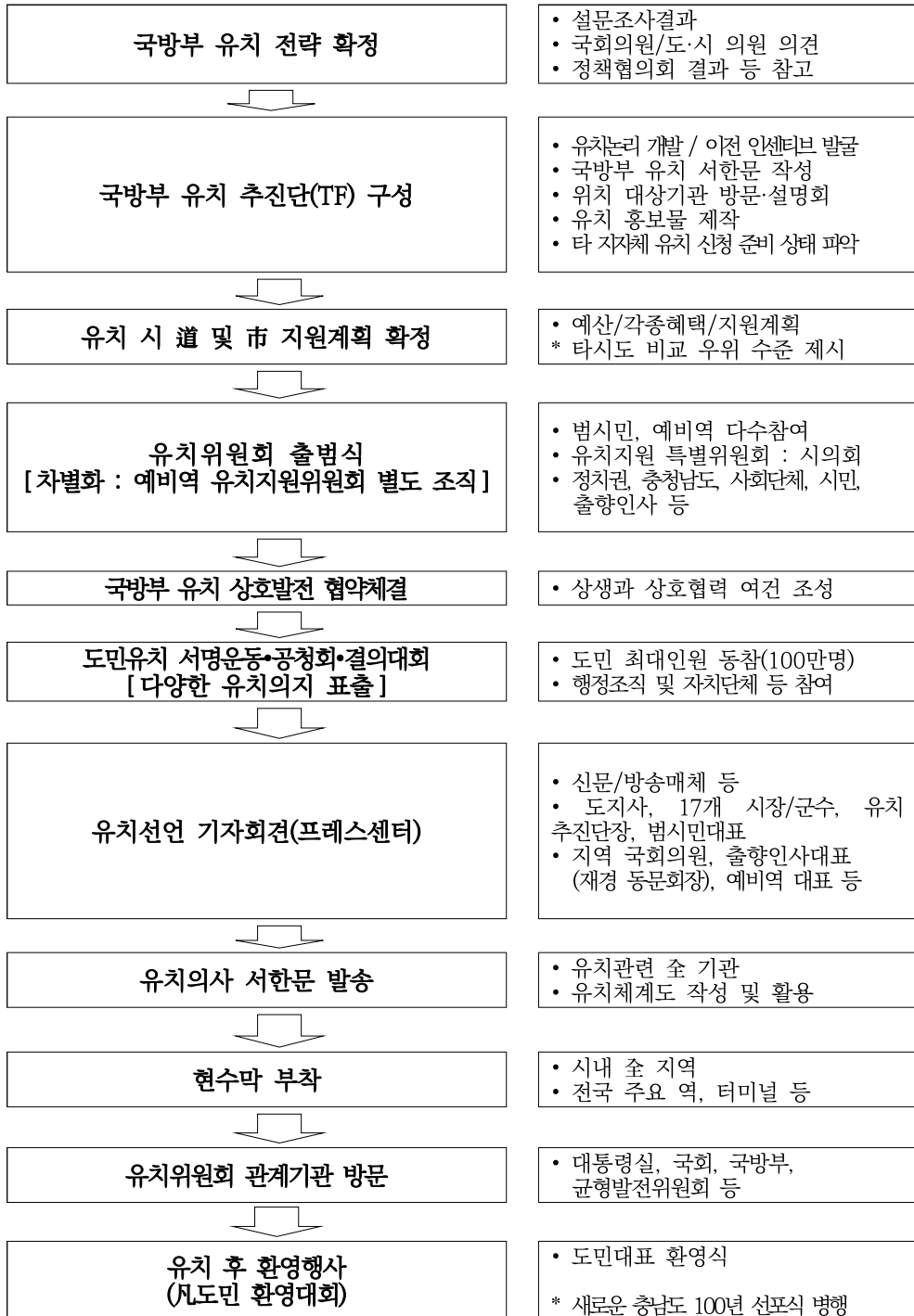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충남 남부권 발전협의회)

유치 추진 흐름도



〈그림-10〉유치 추진 흐름도

제12장 유치 시 기대효과

-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국방부 운영 및 3군과의 효율적인 국방업무 수행여건 보장
- 충남 남부권(논산, 계룡, 금산, 부여, 공주, 서천, 청양) 동반성장 도모
- 3군본부,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및 논산에 조성 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최대 달성
- 전국 최고의 국방정책, 역사, 교육, 연구, 문화, 미래비전 등 융복합적 효과
- 국방부 부지 활용시 이전 비용 최소화 및 이전 기간 단축
-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획기적 확충
- 각종 군 관련 대규모 행사 유치 : 정부, 군, 외국군 주요인사 수시 방문
- 국가유공자, 예비역 등 자긍심 고취 및 안보 공감대 형성의 장(場)
- 충청남도, 논산·계룡시 발전의 새로운 역사창출 기회
-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교육의 메카로 도약
- 전국 최고의 국방 분야 연구의 인프라 구축
- 국가안보, 국가보훈, 나라사랑, 세계평화의 상징도시 부상
- 국방관련 다양한 국내외 행사 개최
- 인구 유입 및 상시 유동인구 증가 : 군인아파트 건립
- 임관식 행사 시 대통령 참석
- 국·도비 예산확보 용이 : 각종 도로망 확장 등
-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체육 및 문화시설 확충

1.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국방부 운영 및 3군과의 효율적인 국방업무 수행 여건 보장 북한지역으로부터 원거리 이격으로 전·평시 안전 확보 및 3군과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유지로 안정적으로 국방부 정책 수행 및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최대로 증대 가능함.

2. 충남 남부권(논산, 계룡, 금산, 부여, 공주, 서천, 청양) 동반성장 도모 계룡, 논산, 금산, 부여, 공주, 서천, 청양지역은 2021년 행정 안전부로부터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충남지역 소멸지역 9곳 가운데 6곳이 이곳이 모여 있는 심각한 상태임. 여기에 금산과 인접되어 있는 옥천, 영동 지역 등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국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충남남부권 전체가 소멸되는 위기를 맞게됨. 이러한 점을 고려 시 국방부가 계룡 또는 논산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단순히 유지한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임.

3. 3군본부,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및 논산에 조성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최대 달성 현재 소재하고 있는 3군 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 항공학교 그리고 2029년을 목표로 조성 추진 중인 논산시의 국방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순로롭게 조성된다면 상호 연계하여 국방 분야 발전에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4. 전국 최고의 국방정책, 역사, 교육, 연구, 문화, 미래비전 등 융복합적 효과 계룡과 논산시에는 단순히 국방분야 교육과 훈련관련 기관만 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정책, 호국의 역사(황산벌 전투 등), 대학의 군 관련연구소, 해마다 개최되는 군문화 축제, 황산벌 전투재현행사, 그리고 국방 특성화 지역 특성을 활용한 국방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 등 국방 분야 발전을 위한 융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가 가능함.

5. 국방부 부지 활용시 이전 비용 최소화 및 이전 기간 단축 공공기관 이전 시 가장 큰 문제가 부지 이전 확보와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임. 하지만 계룡과 논산시에는 국방부 부지가 많아 이전 부지 확보 및 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와 이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역임.

6.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획기적 확충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군 고위급, 공무원 등 6,500명 정도가 이전하게 됨은 물론 세계의 군고위급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등 이에 따른 다양한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임.

7. 각종 군 관련 대규모 행사 유치 : 정부, 군, 외국군 주요인사 수시 방문

계룡시에는 해마다 국군의 날 행사, 군문화축제(2022 계룡군 문화엑스포), 각 군별군 관련 각종 대형행사가 그리고 논산시에 소재한 국방대학교에서는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국방부까지 이전하게 되면 더욱 많은 행사들이 개최될 것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이전지역을 비롯하여 인접지역이 세계적인 도시로 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임.

8. 국가유공자, 예비역 등 자긍심 고취 및 안보 공감대 형성의 장(場) 계룡시는 현재도 시민 중 50% 정도가 군가족 및 예비역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논산시 역시 다수의 군인 가족들과 예비역들이 전역이후 정착지로 삼고 있음. 이 중에는 다수인원들이 군복무를 30년 이상한 국가유공자들이라는 점을 고려 시 이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안보 공감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9. 충청남도, 논산·계룡시 발전의 새로운 역사창출 기회 충청남도는 권력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음. 그 중에서 계룡시와 논산시를 비롯한 남부권은 국방도시 특성을 최대로 살려 첨단국방클러스터 조성을 발전비전으로 세우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전 점을 고려할 때 군 최고 기관인 국방부가 이전해 오면 이를 계기로 추가적인 국방관련 기관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국방 특성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충청남도, 논산·계룡시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임.

10.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교육의 메카로 도약 현재도 계룡과 논산시 하면 국방의 도시라는 인식을 가지고있지만 여기에 국방부를 비롯한 추가적인 국방관련 공공기관이 이전 하게 되면 명실 공히 현재 소재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육군사관학교까지 이전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교육의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11. 전국 최고의 국방 분야 연구의 인프라 구축 계룡과 논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방 대학교와 건양대학교는 국방특성화 지역의 대학으로써 국방분야 교육과 연구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쏟고 있음. 그리고 계룡시 인근역인 대전에는 국방분야 최고 연구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등 국방관련 최적의 연구 여건을 구비 하고 있어 국방부가 이전해 오면 국방과 관련 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12. 국가안보, 국가보훈, 나라사랑, 세계평화의 상징도시 부상 국방부와 3군본부는 국가안보의 가장 상징적인 기관임. 그리고 대부분이 군 주요직위자들이 복무하고 있는 곳으로 국가안보, 국가보훈, 나라사랑 그리고 군문화축제(세계평화를 위한 올림)등과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의미있는 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임.

13. 국방관련 다양한 국내외 행사 개최 여건 조성 국방부와 3군 본부가 소재하게 되면 현재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 외에 매년 개최되어 쏘 세계 50여개 국가의 국방차관이 참가하는 서울안보대화, 대규모 국방산업관련 산업전, 군인체육대회, 전우마라톤 대회,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총장배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추가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이 조성될 것임.

14. 인구 유입 및 상시 유동인구 증가 : 군인아파트 건립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구성원 6,500명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 업체 등도 함께 이전할 것임. 또한 장기간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예비역들이 새로운 정착지로 국방부가 이전한 지역 부근으로 정착하기 위해 모이게 될 것임. 이로 인해 군인아파트와 각종 상업시설들도 함께 들어서게 되고 주민 생활편의 시설 확충(각종 위락시설, 상가,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많은 효과가 기대됨.

15. 국군의 날과 임관식 행사 시 대통령 참석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국군의 날, 임관식 행사시에 대통령이 수시로 참가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해 이전지역은 전국적인 도시로 부각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이 높아지게 될 것임.

16. 국·도비 예산확보 용이 : 각종 도로망 확장 등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국방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입안, 집행되게 됨에 따라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국방 부분만 아니라 국방 분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 이러한 경우 해당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함께 노력한다면 교통망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17.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단순히 국방정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방과 관련된 다양한 군문화가 창출되고 현재 매년개최되고 있는 군문화축제가 더욱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외국의 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 될 것임.특히 국방부 소속의 군악대와 각종 의장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군문화 공연이 펼쳐지게 되는 등 지역일대의 계룡산 등 유명 자연관광지와 백제역사문화 등과 어울려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것임.

18. 체육시설 확충 국방부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체육시설이 조성될 것임.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체육을 통해 교류와 협력의 장(場)을 더 넓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

제13장 결 론

1.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3. 계룡과 논산시는 전국 최고의 국방 특성화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를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4. 유치논리 개발 및 유치를 위한 범시민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됨.
5. 단순히 계룡과 논산지역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소멸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논산을 비롯하여 인근지역인 금산, 부여, 서천, 청양지역 등 충청남도 남부권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유치 노력임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6. 국방부 유치 시 전국 최고의 국방분야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방력 강화차원의 다각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자주국방과 대국민 국가안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7. 국방대학교를 유치했던 경험을 최대로 살려 쏠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임.
8. 국방부 유치는 단순히 하나의 국방관련 기관의 유치차원을 넘어 계룡시와 논산시의 미래 100년을 새롭게 여는 도약의 기회이며 충청남도 남부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9. 계룡시와 논산시가 국방부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면 국방모범도시, 국방안보 특례시 조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K-국방의 상징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함.

참고문헌

1. 계룡시, 국방관련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2019.
2. 순창군, 예비군전용 거점시설 순창군 유치 방안연구, 2020.
3. 공주대 산학협력단, 육군사관학교의 충청남도 이전을 위한 세부추진 실행방안, 2020.
4. 계룡시,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이후 계룡군문화축제추진방향, 2022.
5. 논산시, 방위사업청 산하기관 유치방안 연구, 2022.
6. 충청남도·논산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홍보팸프렛, 2022.
7. 논산시, 방위사업청 산하기관 유치방안 연구, 2022.
8. 충청남도·계룡시·논산시, 충남 국방산업 포럼(국방혁신 4.0충남으로부터), 2022.
9. 논산시, 첫! 대한민국 국방국가산업단지 역량증진 정책 세미나, 2022.
10. 논산시, 국방기관 및 방위산업시설 유치를 위한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구성 출범식 발표내용, 2022.
11. 인터넷 자료(내용, 사진 등)

■ 집 필 자 ■

연구책임	이세영	건양대학교 교수
내부자문	박헌규	건양대학교 교수
	손승호	건양대학교 교수
	김충관	건양대학교 교수
외부자문	조남인	충남대학교 교수
	박종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략연구 2022-25 · 국방부 충남이전 당위성 및 유치전략 검토

글쓴이 · 이세영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2년 12월 31일 / 발행 · 202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314-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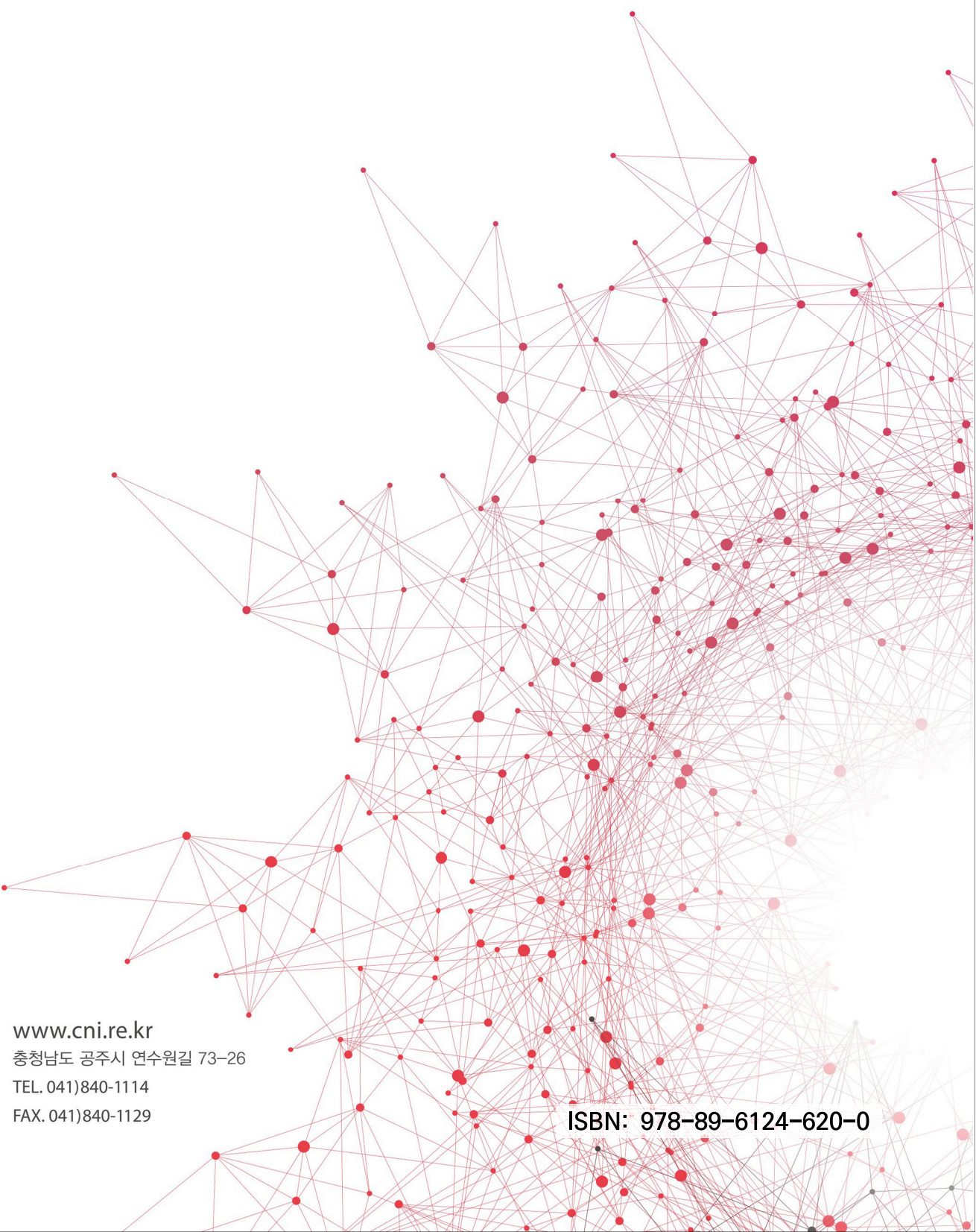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620-0

<http://www.cni.re.kr>

© 2022.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620-0